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 General Self-Efficacy in University Senior Students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홍 석 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지도교수 최 수 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0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홍 석 호

홍석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국문초록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년 홋 석 호

이 연구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 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모형이 변인 간의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 밝힌다. 둘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간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셋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졸업예정자로 4학 년 이상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또한 수도권 여부, 성별, 전공 계열을 조사하여 층화군집비율 표집을 활용하여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총 377명을 표집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각 조사도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91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377부였다. 자료의 분석은 STATA 14.2를 활용하여 관찰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R의 활용하여 구조방적식 분석과 모형 적합도 검정,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도 검정 결과 χ^2 을 제외한 적합도 지수가 모두 적합하게 도출되었다(RMR \leq .05, GFI \geq .90, AGFI \geq .80, RMSEA \leq .10, TLI \geq .90, NFI \geq .90, CFI \geq .90).

둘째, 구조 모형에서의 직접 효과와 관련하여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beta=-.129$, p<.01),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 ($\beta=-.358$, p<.001), 사회부과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beta=-.159$, p<.01), 실패공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beta=-.465$, p<.001)은 부적인 효과가 있었다. 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731$, p<.001).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beta = -.116$, p<.01)와 실패공포,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beta = -.340$, p<.001)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부적인 부분 매개 효과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학졸업에 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동안 주로 특정 전공이나 특수 집단의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일반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진로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단계에 위치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고 그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공포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나 실패공포와 같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실천적 제언은 학생들의 진로의사 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를 수준을 낮 추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대학졸업예정자,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일 반적 자기효능감

학번: 2020-25379

목 차

I.	ᄉ	론1
	1.	연구의 필요성1
	2.	연구 목적4
	3.	연구 가설4
	4.	용어 정의6
	5.	연구의 제한7
II.	d	기론적 배경 ······9
	1.	진로의사결정 수준9
	2.	일반적 자기효능감, 실패공포, 사회부과 완벽주의26
	3.	변인 간의 관계
II	[.	연구 방법49
III		연구 방법 ···································
III		
III	1.	연구 모형49
II	1. 2.	연구 모형 ···································
III	 1. 2. 3. 4. 	연구 모형
	1. 2. 3. 4. 5.	연구 모형
	1. 2. 3. 4. 5.	연구 모형
	1. 2. 3. 4. 5.	연구 모형 49 연구 대상 50 조사 도구 53 자료 수집 61 자료 분석 61

5. 논의	
	80
Ⅴ. 연구 결과 및 논의	85
1. 요약	85
2. 결론	·····88
3. 제언	89
참고문헌	·····91
부록	109

표 차 례

〈丑 Ⅱ-1>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10
〈班 Ⅱ-2>	Super의 진로발달이론12
<班 Ⅱ-3>	Tiedman 과 O'Hara의 진로발달이론13
<笠 Ⅱ-4>	Harren의 진로의사결정 유형15
〈班 Ⅱ-5>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개념18
<班 Ⅱ-6>	진로의사결정 수준 척도의 종류25
<班 Ⅲ-1>	지역별 일반대학교 수와 졸업예정자의 수51
<班 Ⅲ-2>	측정도구의 구성53
<班 Ⅲ-3>	진로의사결정 수준 측정도구 하위 요인별 문항56
<班 Ⅲ-4>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하위 요인별 문항57
<班 Ⅲ-5>	미래지향 시간관 측정도구 하위 요인별 문항58
<班 Ⅲ-6>	PFAI-R를 활용한 실패공포 측정도구 하위 요인별 문항60
<班 Ⅲ-7>	연구목표와 통계 분석방법62
<班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64
<班 IV−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66
<班 IV−3>	관찰변인간 상관행렬68
<班 IV−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적합도 판단기준71
<班 IV−5>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73
<班 IV−6>	진로인식 삭제 후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74
<班 IV−7>	직접효과 분석 결과76

<표 Ⅳ-8>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	요.
능감의 매개효과	78
<표 IV-9>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	79
<표 Ⅳ-10> 연구 결과 종합 ······	80

그림차례

[그림	∏-1]	Holland의 성격 유형 ·····17
[그림	Ⅱ-2]	사회인지 진로이론 모형30
[그림	Ⅱ-3]	DeCastella의 성공지향-실패 공포에 따른 유형37
[그림	Ⅱ-4]	사회부과완벽주의, 실패공포, 자존감, 자기구실만들기, 학업지연행
동 모형	형	38
[그림	Ⅲ-1]	연구모형49
[그림	Ⅲ −2]	층화군집비율표집 방법 및 절차53
[그림	IV-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69
[그림	IV-2]	구조모형 분석 결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Super(1957)의 진로발달단계 중 탐색기(explorationstage)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신의 욕구, 흥미, 가치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적합한 직업을 획득하여 직업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주요한 과업이다. 직업이란 경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만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발휘하여 자기 개발을 하고 자아를 실현하게 해주며, 직업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 중 한 사람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영위하게 해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직업을 처음 획득해야 한다는 목표 내지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고민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을 장려해왔다. 이는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청년실업률을 개선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Gebel & Gieske, 2016). 국가 차원의 진로 지원은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종합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권고하였고, 노동부는 2006년에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실시하여 선별적으로 대학을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청년실업해결 노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이영대, 윤형한, 2007). 최근에는 실업률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도 만들어졌다. 2019년에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진입 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실시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점에서 국가의 간접적인 개임을 유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정진철 외, 2022).

하지만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의 실업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22). 또한 실업률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실업 상태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노동시장에 전입하기 전의 대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로의사결정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데에 어떤 심리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할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실패 에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공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개인은 실패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실패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 두려운 심리을 가질 수 있다(Birnev et al., 1969), 실제로 한번의 실패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현실에서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철영(2011)은 우리나라 대학생 이 직업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보도 자료(2011)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로 확립 시기에 관한 설문에서 , '대학 4학년'에 진로를 확립했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대학3학년' 23.1%. '대입 후 전공이나 과정 선택 시기'는 13.2%, '중/고 교 시절'은 9.8%의 응답을 보였고. '휴학 기간 동안'에 진로를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8.5%였다는 점은 진로정체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심리적인 요인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유진희, 양난미, 2017; 조이슬, 강영신, 2015)는 이때까지 실패공포(오충광, 신진철, 2019; 김현홍, 김 진강. 2019)와 함께 학업적 지연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학업적 지연 행동은 주어진 기한 내 끝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과도하게 미루는 지연행동(Solomon & Rothblum, 1984)으 로 정의되는데, 그간의 실패공포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관련된 연구는 개인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주요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 후에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재수를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거나 전망이 좋은 전공으로 바꾸려는 현상(김봉환, 최명운, 2002)과,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대체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취업이나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졸업예정자는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의 단계에 놓인 학생으로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출발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코로나, 고용없는 성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이행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윤지영, 2020). 한국무역협회(2020)에서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n Unemployment Crisis after the Onset of COVID-19'를 인용하며 코로나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 2,8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며 노동시장 이행의 어려움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임을 시사하였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 직업세계에 진출하더라도 진로를 결정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여 직업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신입사원들의 조기퇴직이 많은(엄동욱, 2008) 이유를 설명하는 한 측면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시기에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1994)을 통해 개인이 직면한 심리적인 변인이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효능감이 인지적인 기제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특성, 환경변인 등의 선행변인과 진로행동, 진로만족과 같은 결과변인을 통합적으로 매개할 수 있고(Hackett & Lent, 1992), 특정 행동영역에 대한낮은 자기효능감은 그 행동을 회피하게 하고 반대로 높은 자기효능감은 접근하게 하므로(Bandura, 1977) 전반적인 진로발달 과정에서 실제적인 목표지향행동에 대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Hackett & Betz, 1981).

앞서 언급한 문헌 고찰을 이 연구에서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일생의 진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졸업예정자들에게 이러한 변인들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대학졸업예정자가 받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을 경감하여 효과적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구조모형의 일부 경 로에서 미래지향시간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모형이 변인 간의 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 는지 밝힌다.
- 둘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간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 셋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가설

앞서 서술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영향관계를 예측 하기에 적합함 것이다.
- 가설 2.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1.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4.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5.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간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가설 3-1.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 정의

가. 진로의사결정 수준

진로의사결정 수준(Career Decision—Making Status)이란 개인이 진로에 대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지, 행동, 정서를 조절하여 진로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한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의사결정은 준비, 수행, 성찰의 순환적 과정을 거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을 일련의 과정(Gati et al., 1993; Harren, 1979; Perterson et al, 1991)으로 파악하는 선행연구의 주요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의사결정 자기조절 이론의 관점에 기초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조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의사결정 준비, 진로의사결정 수행, 진로의사결정 성찰이라는 요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진로의사결정 준비의 하위 요인으로 진로 인식과 진로 정보 분석, 진로의사결정 수행의 하위 요인으로 진로 환경 관리와 주의 집중, 진로의사결정 성찰의하위 요인으로 진로 정체감 형성과 진로 안정감 형성을 갖는 조규형(2018)의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나.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Flett, Besser, Davis & Hewitt(2003)의 개념을 토대로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의 과제 수행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한다고 가정하에 그에 따라 자신이 타인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는 완벽한 과제 수행을 요구 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Hewitt과 Flett(1991)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를 한기연(1993)이 번역하고 이미화(2001)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

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세 가지 하위척도가 각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15문항만 사용하였다.

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은 다양한 성취상황에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인 유능감에 대한 동기적 신념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정도라고 정의했다. 이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송윤아(2010)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에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이 척도는 특수 자기효능감과 대비되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실패공포

실패공포는 간단하게는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패공포를 실패시에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 사회적 영향을 잃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Conroy(2001)가 개발한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를 Conroy 외(2002)가 개정하고 임성문(2005)이 번안한 도구에 대학졸업예정자가 응답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학졸업예정자로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4학년 이상 의 학생의 미래지향 시간관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 의 매개 효과와 실패공포의 조절효과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만, 충화군집비율표집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모집 단을 완벽하게 대표하는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정규 학기를 초과한 5학년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이 학업을 연장한 사유가 진로 이외의 문제인 군대, 건강, 가정 문제 등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의사결정수준이 과대 추정될 수도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의사결정 수준

가. 진로의사결정 이론

전로의사결정 이론이란 개인의 다양한 진로선택시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자하는 이론을 말한다. Chartrand & Camp(1991)의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이론에 관한 연구 경향을 유형화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고전적 의사결정이론에 기초한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들이고, 둘째는 일련의발달적 관점에서 진로의사결정을 기술하는 발달적 접근이며, 셋째는 진로의사결정에서의 개인차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결국 '개인이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도와주기위한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향자, 1993).

1) 고전적 의사결정이론에 기초한 진로의사결정 이론

고전적 의사결정이론에 기초한 진로의사결정 이론 연구는 대표적으로 Vroom의 기대 모델과 Janis & Mann의 갈등모델이 있다. Vroom의 기대모델은 일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인간의 행동은 내부로부터 동기화되며 동기는 유인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이 모델은 개인의 일 관련 행동을 동기 및 유인가에 의해 좌우되는 의사결정의결과로 설명한다. 한편 Janis & Mann의 갈등모델에서는 각 개인이 의사결정을하려고 할 경우에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가정 하에 스트레스와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 발달적 관점에서의 진로의사결정 이론

진로발달은 보편적으로 한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해나가는 학습 과정을 의미한다(McDaniels & Gysbers, 1992). 진로발달은 1950년대 초반 Ginzberg et al.(1951)에 의해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최초로 개념화 되었다. 이 과정은 크게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Ⅱ-1⟩ Ginzberg의 진로발달이론

과정	연령		특징
환상기	6~11세		력이나 기능성, 현실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구만을 갖고 직업선택을 하는 상황
		흥미 단계	• 흥미와 취미를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
잠정기	11~17세	능력 단계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시도가 일 어나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 식하기 시작
		가치 단계	직업선택 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시기
		전환 단계	외부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결정이 미래와 연관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기
현실기	18세 이후	탐색 단계	• 직업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탐색
		구체화 단계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 등의 내적요소 와 실현가능성 등의 외적요소를 고려하 여 타협
		특수 화 단계	잠정적인 결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밀 한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선택에 도달

우선 환상기(Fantasy period)는 6세부터 11세까지의 단계로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 현실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욕구를 통해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이후의 단계는 잠정기(Tentative period) 로 11세부터 17세까지의 기간이고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가치 단계, 전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흥미 단계는 흥미와 취미를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둘째, 능력 단계는 자신의 능력을 확인받기 위한 시도가 일어나며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셋째. 가치 단계는 직업선택 시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전환 단계는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외부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기이다. 17세 이후의 단계는 현실기(Realistic period)라고 하고 직업을 실제로 탐색하는 탐색 단계, 내적 요소와 외적요소를 고려하여 타협하는 구체화 단계, 결정의 구체화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직업선택에 도달하는 특수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발달에 대한 개념화가 최초로 Ginzberg et al.(1951)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Super(1957)는 진로발달의 범위를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은퇴기로 제시하면서 전 생애동안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과정을 나타낸 내용은 다음 〈표 Ⅱ-2〉와 같다.

<표 Ⅱ-2> Super의 진로발달이론

과정	연령		<u>특</u> 징
		환상기	• 욕구가 지배적이며 역할수행이 중시되는 시기
	14세 이전	흥미기	• 진로와 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흥미가 중
성장기			시되는 시기
		능력기	• 진로선택에 능력과 직업에서의 훈련조건이 중
		07/1	시되는 시기
		작정기 -	•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취업 기회 등을 고려
	15~24세	1337	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탐색
탐색기		전환기	• 직업세계로 입직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을 통해 자아개념 확립
		시행기	•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선택
		71071	및 입직
	25~44세	시행기	• 자신이 선택한 분야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직
확립기		71071	업의 이동 및 변화를 시도
먹답기		안정기	• 진로 유형이 안정되는 시기로 만족감, 소속
		201	감, 안정, 지위를 얻는 시기
유지기	45~65세	• 안정된	삶 속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시기
은퇴기	66세 이후	• 정신적,	유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직업에서 은
		퇴하여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탐색하는 시기

먼저 성장기는 14세까지의 시기로 욕구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환상기와 흥미위주로 진로 및 목표를 결정하는 흥미기, 진로선택에 능력을 고려하는 능력기로 구성되어있다. 탐색기는 15세부터 24세까지의 시기로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취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잠정기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자아개념을 확립하는 전환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거나 입직하는 시행기로 구성되어 있다. 확립기는 적절치 못한 직업이라고 판단되면 직업의 이동 및 변화가 일어나는 시행기와 안정된 진로 유형을 바탕으로 만족감이나 소속감을 얻는 안정기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변화를 거쳐 45세부터 65세까지는 안정된 삼속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유지기로 제시하였고 66세 이후는 은퇴 후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탐색하는 시기인 은퇴기로 제시하였다.

Tiedman 과 O'Hara(1963)도 진로발달의 단계를 Super(1957)의 이

론과 유사하게 진로발달의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직업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진로발달과정으로 바라보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일생 동안 수 차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화기로 구성되어 있는 예상기와 순응기, 개혁기, 통합기로 구성되어 있는 실천기로 제시하였고 이 과정은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Ⅱ-3>과 같다.

⟨표 Ⅱ-3⟩ Tiedman 과 O'Hara의 진로발달이론

과정	특징		
예상기	탐색기	• 진로목표 설정, 대안탐색, 진로목표 성취할 수 있 는 능력과 여건에 대한 예비평가	
	구체화기	• 가치관, 목표, 보수, 보상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로준비	
	선택기	•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구분 짓는 구체적인 의사결정	
	명료화기	• 결정을 신중히 분석 및 검토	
	순응기	• 새로운 집단이나 조직에 적응	
실천기	개혁기	• 인정을 받은 후에 강력하게 자신을 주장	
	통합기	• 집단, 조직의 요구와 자신의 욕구를 타협 및 통합	

이후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진로발달에 대한 정의는 공통적으로 진로에 대한 인식, 관련 행동, 선택을 포함하고 있다. Crites(1973)는 진로발달의 수준을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발전시켜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라는 용어로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진로 선택의 과정에서발현되는 인지적, 정의적 특징으로 동일 연령 계층 대비 일관되고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1950년대부터 진로발달 초기 이론을 발전시킨 학자들의 가장 큰 공헌은 진로의 전 생애 동안 변화하는 특성을 개념으로 체계화하여 진로결정과 탐색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내·외적인 특성과 주변 환경은 한 시점에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유기체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점을 간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Gati & Asher, 2001). 또한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여성, 유색인종, 저소득 계층 등 노동 인력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Savickas & Lent, 1994).

이후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등장을 기점으로 하여 진로발달은 개인의 타고난 특성이나 환경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요인들로부터 일방향적인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개인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인 상황적인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Lent et al., 1994). 사회인지진로 이론을 기반으로 진로발달 관련 다양한 방면의 연구를 진행한 Brown(2002)은 진로발달을 한 개인이 일에 대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일과 관련한 과업, 행동, 경험 등을 형성하고 관리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직업과 소속된 조직을 뛰어넘어 평생 동안 변화하고 발전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진로발달의 범위는 한 사람의 일생동안 일과 관련한 모든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물리적, 경제적 요인들의 총제적인 발달과정으로 확대되어 제시되었다(Zunker, 2002). 진로발달을 단순히 직업과 관련된 개념이 아닌 한 사람의 생애설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Walton & Mallon, 2004).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구성해나가는 고유성에 주목한 Savickas(2005)는 진로발달을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해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한 행동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으로 개념적인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적인 견해는 진로의 개인 고유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진로발달을 사회적 맥락과 자신을 조화시켜 나가는 해석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Usinger & Smith, 20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진로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발달 과업으로 사회적인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미래 방향에 대한 탐색, 계획, 결정, 실천을 통해 진로에 대한 자기의식을 성장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로가 발달한다는 것은 개인특성, 사회 환경적 요인, 인지 및 행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면서 진로 흥미를 키우고, 탐색 활동을 통해 진로 결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개인차를 살펴본 진로의사결정 이론

진로의사결정에서 개인별 차이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춘 이론은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를 강조하는 진로상담 분야에서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봉환, 1997). 그렇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에서의 개인차 이론은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유형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한 Harren(197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를 나타낸 것은 다음 다음 $\langle \mathbf{H} | \mathbf{H} - 4 \rangle$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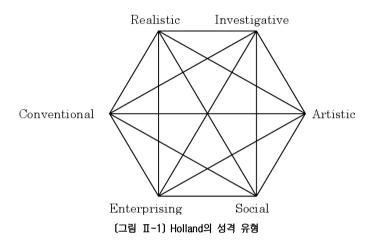
〈표 Ⅱ-4〉 Harren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유형	특징
	• 미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로 정보 탐색
합리적	•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 논리적인 의사 결정
	• 미래에 의사결정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
직관적	• 정서나 감정을 통한 의사결정 수행
	• 만족할만한 수준의 의사 결정
	• 주변 사람을 통항 진로 정보 탐색
의존적	•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권위 있는 타인의 의견을 통한 의사결정 수행
	• 의사결정을 어려워 하며 외부로 책임 전가

먼저 합리적 유형은 현재의 의사결정이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자신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색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진로

를 둘러싼 맥락을 신중하게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중요 시한다. 직관적 유형의 사람들도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합리적 유형의 사람에 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서나 감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 과 정이 신속하며 자신의 특성이나 상태에 집중하여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내린 다. 의존적 유형의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나 권위 있는 타인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인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나 친구의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외부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하 지만 이러한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도 주변인이 진로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 거나, 진로의사결정에 많은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합한 유형일 수 있다.

또 다른 유형 연구로는 개인의 진로 선택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진로 상담에 유용하게 활용하는 Holland의 이론(1998)이 있다. 그는 개인과 환경의 유형을 통해 6가지의 유형을 설정하여 진로 선택을 설명한다. 이 성격은 실제형 (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 (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으로 구분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인 성격과 환경 특성이 일치하였을 때 개인은 높은 만족도와 성취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또한 여섯 가지의 성격 유형을 육각형 모델에 R-I-A-S-E-C t순으로 배치하여 서로 근접한 유형일수록 두 유형 간의 유사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된 모형은 [그림 II-1]과 같다.



나. 진로의사결진로의사결정 수준 개념

1)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개념 정의

진로란 인간의 전 일생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애발달과 과정, 그리고 내용을 가르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되고, 의사결정이란 개인이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이다(고향자, 1992). 이러한 진로와 의사결정의 의미를 비추어 살펴볼 때, 진로의사결정은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 시점에 있어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김계현, 김봉환, 1997). 즉, 진로의사결정은 개인이 진로에서 다양한 선택지점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의사결정과정을 말하고,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진로의사결정 모형을 기반으로 정보조직과 대안고려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심리적인 과정의 내용이 포함된다(김지순, 1998). 이와 같은 진로의사결정은 인간의 생애발달에 있어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동안의 진로를 교육하는데 있어 중요한주제 중 하나로 대두되어 왔는데(Osipow, 1976, 1999; Mitchell & Krumboltz, 1984),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의 사람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인생 과업이기 때문에 진로에 있어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다(Brown & Lent, 2008; Phillips, 2002).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진로의사결정을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한 선행연구(Brown & Mcpartland, 2005; Miller & Brown, 2005)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정도라는 틀로 접근할 수 있다(조규형, 2018).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회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진로의사결정을 진로 결정을 위한 행동과정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한 연구자(Harren, 1979)도 존재하는데, 이 관점에 따르면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연구는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II-5>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Ⅱ-5〉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개념

연구자	정의
박상욱(2005)	• 개인의 진로에 대해 결정된 수준에 대한 개념인 동 시에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개인 특성까지도 포 함
이성식(2007)	단순히 개인의 진로에 관해 결정된 수준에 한정된 개념보다는 이러한 의미와 함께 진로의사결정 과정 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 또한 포함하는 정의되 는 개념
장광원(2012)	진로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 상황이나 장면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선택과 결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주도해 내갈수 있는 복잡한 과정
김봉환(1997),	•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 사이의 양극단 가운데 연속 선상의 한 지점을 의미

먼저 박상욱(2005)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개인이 진로에 대해 결정된 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성식(2007) 또한 개인의 진로에 관해 결정된 수준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의 특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장광원(2012)은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개인의 능동성을 부각하여 진로 의사결정을 진로와 관련된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태도로 미래를 예측하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의사결정은 진로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 상황이나 장면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 선택과 결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주도해 내갈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진로의사결정이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결정이며, 진로 결정의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 진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결정을 말한다(강선영, 1996; 정채기, 1991). 이러한 진로 결정은 개인이 오랜 과정을 거쳐 선택한 것이고 결정하는 것 이전에 선택을 해왔다는 부분에서 개인의 특성과 주변의 환경, 개인의 욕구와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진선, 2002).

2)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유사 개념 정의

진로결정의 수준과 관련된 이론은 진로결정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더라도 바꿀 수 있으므로, 진로결정이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선택자의 확신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제기된 진로결정 수준의 개념이 등장하여 시작되었다. 진로결정 수준은 확신의 정도가 높은 상태를 '결정', 확신의 정도가 낮은 상태를 '미결정'이라고 개념화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진로의 결정과 미결정을 개별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는 특성으로 보는데, 실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분야에서의 연구는 진로미결정에 주로 관심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김봉환 외, 2010). 또한 진로결정의 개인차와 관련된 이론들은 Holland와 Holland(1977)의 진로안내서, Strong—Campbell

진로흥미검사, 직업선호도 검사(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등의 진로 결정수준 검사도구가 등장하면서 더욱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이러한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전로결정,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결정효능감이라는 유사한 용어로 정의되어 왔다. Crites(1973)는 진로결정에 대하여 '각 개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시점의 결정과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써, 각 개인이 특별한 직업을 시작하기 위한 표현'으로 정의하였고, 김봉환(1997)은 진로결정 수준을 '향후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하는 정도로서 명확한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극단으로 하는 연속적인 선상의 한 지점'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연관하여 이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진로미결정, 진로결정의 개념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진로미결정에 대한 연구는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하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의 차이를 살펴보기위해 시작되었다(Wanberg & Muchinsky, 1992). Locascio(1964)는 진로미결정이 진로에 대한 지식, 기술, 인지가 부족하여직업선택과정에서 과업 수행의 무능력한 측면이 부각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Crites(1981)은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진로미결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상태의 원인을 한 개인의성별이나 문화적 배경이 아니라 정보의 부족이나 진로 선택에 대한 학습 및 체험 요소의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김지선(2012)은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의 차이에 대해서정의를 내렸는데, 진로결정이 올바르고 적절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 결정의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능동적인 상태를 말한다면 진로미결정은 자신 이해의 부족과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인식, 정보의부족, 그리고 선택의 두려움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진로를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결정 또한 못한 상태를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Ⅱ -5>와 같다.

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대학생의 전로결정에 있어 전공 선택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대학생활 뿐 아니라 미래의 직업선택과 장래의 삶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연범, 2014). 따라서 자신에게 맞은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도와 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진로에 대한 문제를 진로상담가들을 중점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다(한승희, 200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을 입학할 때 전공이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4년의 대학 생활 동안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며, 이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진로지도의 부재 또는 전공학과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다수의 대학생들이 전공학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선택한 전공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정태욱, 2004).

우리나라에서 대학생 시기는 교육의 현장에서 직업의 세계로 옮겨갈 준비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로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진로 선택을 해야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철영, 1997).

이처럼 대학생 시기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발달단계 상 청년기 또는 후기 청년 기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과 적응 그리고 변화의문제들과 의사결정을 일생동안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의 진로발달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이전과 다른 특징을 보이며,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Super, 1980). 이에 청년기에 주요한 과업 가운데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은 대학생 시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며, 특별하게 대학을 졸업한 시점에서 취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진로의 전환은 구직 이후의 전직과 이직과 같은 진로 전환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조규형, 2018).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은 직업에 있어 환경의 변화와 같은외적 요인에 의해 매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기술과 산업의 고도의 발전 상황 가운데 올바른 진로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맥락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의 필요가 있으며(Levin & Gati, 2015), 현재의 대학생들은 확실치 않은 고용환경과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과거의 취업환경보다 더욱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못지않은 진로 교육적 관점에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통해 대학생들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의사결정 문제의 연장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조규형, 2010).

라.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측정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며, 이들에 의해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척도가 개발 되어왔다.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된 도구는 Holland와 Holland(1977)가 개발한 직업의사결정 어려움 도구(Vocational Decision—Making Difficulty Sacle, VDMDS)이다. 그 후, Osipow, Carney, 그리고 Barak(1976)이 진로 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Jonse 와 Chenery(1980)가 개발한 직업결정척도(Vocational Decision Scale, VDS), Gati, Krausz, 그리고 Osipow(1996)의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지(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CDDQ), 고향자(1992)의 진로결정수준도구,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직업 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등이 개발되고 사용되어 왔다. 〈표 II—1〉은 여러 가지 척도를 정리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Osipow, Carney & Barak(197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결정과 미결정을 중심으로 교육-직업 미결정의 선행요인을 측정하는 척도(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하위 요소로 구조의 필요성(need for structure), 지각된 외부 장애(perceived external barriers), 선택 갈등에 대한 긍정성(positive choice conflict), 개인적 갈등

(personal conflict)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후, Osipow(1980)는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의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이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진로결정수준을 연구할 때 활용되어왔다. 그는 진로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19개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구조와 확신의 결여(a lack of structure and confidence), 인지적 외부적 장애(perceived external barriers), 접근—접근 갈등(approach—approach conflict), 개인적 갈등(personal conflict) 네 가지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Jonse와 Chenery(198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 상태에 대한 서로 다른 하위 유형을 규명하는 직업결정척도(Vocational Decision Scale, VDS)를 개발하였다. 진로 결정수준, 결정 수준에 대한 편안함, 미결정의 이유 세 차원을 평가하여 자기—불확실성(self-uncertainty), 두드러지는 일 선택(choice/work salience), 과도기적 자기(transitional self)가 도출되었고, 하위 유형으로는 진로를 결정한 편안함, 진로를 결정한 불편함,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편안함,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불편함이 측정되었다.

Chartrand, Robbins, Morrill 그리고 Boggs(1990)는 진로요인검사(Career Factor Inventory, CFI)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정보와 관련한 두 가지 하위요 인인 진로정보 필요요인과 자기이해 필요요인, 개인의 감정과 관련한 두 가지하위요인인 선택불안요인과 일반적인 미결정요인이라는 네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제시되었다.

Gati, Krausz, 그리고 Osipow(1996)는 진로결정단계의 초기에 속해있는 젊은 이스라엘 성인(19-23세)과 미국의 대학생(17-23세)을 대상으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동기부족, 우유부단함, 진로결정절차, 자신에 대한 정보부족, 직업의 보수나 사회적 지위, 정보획득 방법, 신뢰롭지 못한 정보, 내적갈등 외적갈등의 9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된 진로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지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CDDQ)를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고향자(1992)가 Osipow, Carney, Winer, Yanico, 그리고 Koschir(1976)의 도구를 우리나라에 적절한 문장으로 번안한 도구가 존재한다. 이는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1개로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위 구성으로는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교육과 직업미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이루어져있다.

탁진국과 이기학(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형 직업 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를 개발하고, 하위요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외적장애, 사회인식 부족, 우유부단,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인식 부족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조규형(201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검사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진로의사결정 준비, 진로의사결정 수행. 진로의사결정 성찰의 요인 구조속에 진로의사결정 준비의 하위 요소로 진로 인식 4문항, 진로 정보 분석 5문항, 진로의사결정 수행의 하위 요소로 진로 환경 관리 4문항, 주의 집중 5문항, 진로의사결정 성찰의 하위 요소로 진로 정체감 형성 5문항, 진로 안정감 형성 6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학년별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 수를 매칭한 규준표를 마련하여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같은 점수가 나타나더라도 각자의 집단내에서 상이한 백분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표 Ⅱ-6〉 진로의사결정 수준 관련 척도의 종류

 연구자	하위요인	신뢰도
<u> </u>	• 구조의 필요성	
Osipow, Carney & Barak(1976)	 지각된 외부 장애 선택 갈등에 대한 긍정성 개인적 갈등 	.819902 (test-retest correlations)
Osipow(1980)	 구조와 확신의 결여 인지적 외주 방애 접근-접근 갈등 개인적 갈등	.8090 (test-retest correlations)
Jonse, & Chenery(1980)	 진로를 결정한 편안함 진로를 결정한 불편함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편안함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불편함 	.75 (interrelations)
Chartrand, Robbins, Morrill, & Boggs(1990)	 진로정보 필요요인 자기이해 필요요인 선택불안요인 일반적 미결정요인	.87 (Cronbach α)
Gati, Krausz, & Osipow(1996)	 동기부족 우유부단함 진로결정절차 자신에 대한 정보 부족 직업의 보수 및 사회적 지위 정보획득 방법 신뢰롭지 못한 정보 내적갈등 외적갈등 	.95 (Cronbach a)
고향자(1992)	•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 교육과 직업미결정 전제조건	.86 (Cronbach α)
탁진국, 이기학(2001)	외적장애 사회인식 부족 우유부단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필요성인식 부족	.87 (Cronbach α)
조규형(2018)	진로의사결정 준비(진로 인식, 진로의사결정 준비(진로 인식, 진로 정보 분석) 진로의사결정 수행(진로 환경 관리, 주의 집중) 진로의사결정 성찰(진로 정체감형성, 진로 안정감형성)	.91 (Cronbach α)

2. 일반적 자기효능감. 실패공포. 사회부과 완벽주의

가. 일반적 자기효능감

1)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 정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의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바탕으로 발전한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의 기본이 내적 참조체계(internal reference system)인 자기조절체계(self regulatory system)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Bandura, 1997). Bandura(1986)는 개인, 행동,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인과관계를 형성한다는 삼자상호작용론(triadic reciprocality)을 제시했으며 이 세 가지 요인 중 특히 인지적 개인 요인인 자기참조적사고(self referent thought)가 개인의 심리,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 자기 참조적 사고가 바로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Bandura, 1977). 또한 주어진 상황의 요구에 맞게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각된 능력(Owen & Froman, 1988)이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장미선, 2003). 그 밖에도 주어진 상황의 요에 부합하는 동기, 인지적 원천(Resources) 및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Gist & Mitchell, 1992),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Silver, Mitchell and Gist, 1995)으로 정의했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기대 즉, 효능기대 (efficacy expectation)와 결과 기대(outcome expectation)로 설명한다. 이때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원하는 결과에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확인이며 이는 효능기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결과기대는 특정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평가(최미이, 2000)로 결과기대

보다는 효능기대가 동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행동변화를 더 잘 예측한다고 보았다(박현미, 2011).

정애경(2008)은 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학습 능력 및 방법을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이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자기조절에 있어서 핵심인 자기효능감은 위협이나 장애물에 직면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점차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Bandura, 1977).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수행을 매개하며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강력한 매개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기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Bandura, 1977; Schunk, 1984).

Bandura(1977)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과제수준(level), 강도(strength), 일 반성(generality)의 세 가지 차원을 가진다. 첫째, 과제수준은 과제를 수행하려는 동기에 영향을 주는 과제나 상황의 난이도에 따라서 효능감이 달라지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강도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기효능감의 지속정도를 말하며, 강한 자기효능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며 그에 맞는 대처행동을 찾는다고 한다. 셋째, 일반성은 완수경험의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성 차원에 따라 상황-특수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분류할 수 있다(Bandura, 1977).

상황-특수적 자기효능감이란 상황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다르게 변화한다고보는 관점으로 이때의 상황은 과제의 난이도나 상황, 복잡성 등을 말한다(Bandura, 1986; 1989). 처음의 자기효능감은 상황-특수적인 신념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완수경험의 파급효과가 완수경험과 유사한 상황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전이되며(Bandura, 1977), 다양한 성공경험을 한 개인이실패의 경험을 반복한 개인보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Sherer & Adams, 1983)이라는 관점에서 개인마다 갖고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 행동 또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즉 한 개인은다양한 상황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다른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Sherer &

Adams, 1983). 특수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단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변수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측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Sherer, 1983)은 인정하지만, 다양한 상황과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자기효능감이 사전경험이 없는 상황에서의 과제에 대한 수행이나 전반적인 수행형태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송윤아, 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수한 상황의 과제수행 능력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과제에 직면했을 때개인이 보이는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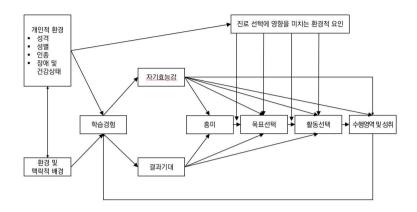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과제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인 수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일반화된 특성이다(Eden & Zuk, 1995).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화된 요구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신념체계를 나타낸다(Stajkovic & Luthans, 1998).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특수 자기효능감에 비해 구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효능감에 대한 신념이라 하였다(Chen, Gully, Eden, 2001).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들은 상황-특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들과 높은 수렴, 변별 타당도를 나타낸다(Eden & Kinnar, 1991: Smith, 1989: Wang & Richarde, 1988).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김아영과 차정은(1996)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귀인, 과제난이도 선호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문항들을 검사한 결과 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다른 요인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귀인을 제외한 세 가지 요인을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하위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 정도를 말하며,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축소된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 Jacobs, 1982). Bandura(1993)는 이러한 자신감이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이후 정서적 반응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 둘째, 자기조절효능감은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조절기술이 목표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확신정도로써 자신의 행동과 목표를 판단했을 때 긍정적이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러한 판단이 부정적이라면 목표달성을 위한 부가적 행동 반응인 자기관찰, 자기 평가, 자기반응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목표를 위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 세 가지, 즉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김아영, 차영은, 1996).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높은 목표를 수행했을 때 긍정적 정서반응을 가져와 다시 높은 효능감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순환이 계속된다(Schunk, 1984).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높은목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피하려하므로, 낮은목표를 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Bandura, 1977).

2) 일반적 자기효능감 관련 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1980년대에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Hackett과 Betz(1981)가 여성의 진로발달 및 선택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Hackett과 Betz는 여성들이 진로대안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이과정에서 Bandura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기존의 진로와 관련된 이론에서는 개인이 선택하는 진로가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Hackett은 스스로가 조절할수 없는 개인의 성향과 환경만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 변인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선택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한 모형은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II-2] 사회인지 진로이론 모형(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이 모형에서는 흥미의 발달이 진로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각 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모형을 통해서 개인적인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진로 선택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nt, Brown, & Heckett, 2002). 둘째, 흥미는 진로선택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이 된다(김 봉환 외, 2013). 즉 개인은 스스로에게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과업을 달성하였을 때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때 진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있다(김진관, 2014). 셋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바탕으로 획득한 흥미는 진로 활동에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종합하면 개인은 단순하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특성과 환경에 의해서만 진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인 요 인을 바탕으로 외부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흥미를 얻고 심화적인 활동을 통 해 진로 선택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개인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자기효능감을 능동적인 존재 로 탈바꿈 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자기효능감, 즉 다양한 영역의 성취 상황들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인 유능감에 대한 신념(Eden, 2001)으로 정의하고, 특수 자기효능감과 구분하고 있다. 특수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필요한 행동들을 얼마나잘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의미하는데, 진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자신이잘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 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다(Betz & Voyten, 1997).

선행연구(Chen et al, 2000)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특수한 상황과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제안한다. 개인의 과거 성공과 실패 경험(실제 경험, 대리경험, 언어 설득, 정서 각성)이 축적 되어 자기효능감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 자기효능감은 동일한 과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과거 경험들이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 자기효능감 기대는 개인이 특수한 영역을 새로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den(2001)과 Gardner & Pierce(1998)는 일반적자기효능감을 특성변인으로, 특수 자기효능감을 상태 변인으로 보기도 하는데,이는 특수 자기효능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기점으로 하여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정, 박소영(2017)은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 준비행동 및 지각된 진로장애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특수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기준으로 예측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Chen et al, 2000)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ndura(1997)에 따르면 이전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들을 통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 의 특성변인으로 작용한다(Eden, 2001; Gardner & Pierce, 1998). 그리고 개인이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특수 자기효능감이라는 상태변인으로 작용한다(Eden, 2001; Gardner & Pierce, 1998). 특수 자기효능감은 진로를 준비하는 상태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작용을 할 것인데, 진로준비 상황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이전의 전반적 성공 및 실패 경험을 토대로 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4)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

초기의 자기효능감 연구에서는 특수적 자기효능감의 관점을 취했던 Bandura(1977)의 견해를 수용하여 특정 과제에 국한된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특정 과제에서의 효능기대만으로는 개인이 새로운 문제나 과제에 당면했을 때, 그것이 유사한 과제가 아닌 경우 개인의 수행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측정 도구 개발이 이루어졌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점을 취했던 Sherer 등(1982)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라는 2개의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0~.90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Sherer 등(1982)의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들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됨을 언급하였지만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시 다요인 구조가 나타나는 등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Shcwarzer와 Jeusalem(1981)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General Perceived Self-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다. 이는 개인이 다양한 장면에서의 새롭거 어려운 과제들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묻는 내용으로 단일요인구조로 구성되었다. 총 10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

로 측정되었으며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1-.91로 나타났다.

이후, Chen 등(2001)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단일 요인 구조로 총 8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는 목표달성에 필요한수행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나 신념에 대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90으로 기존의 도구보다 더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고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차정은(1997)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처음으로 개발 했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네가지 구성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 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과 네가지 과정인 인지 과정. 동기 과정. 정서과정. 선 택 과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3개의 하위요 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구성했다. 도구는 31개 문항으 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1-.95로 적절한 신뢰도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 도구는 이후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으로 총 24개 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여러 국내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의 연구를 홍혜영(1995)이 수정 봉완하여 23문항으로 구성한 도구와 신경자(2009)가 번안하고 12개의 문항으 로 수정하여 활용한 것이 대상의 구분 없이 활용 되고 있다. 또한. Chen등 (2001)의 도구를 오인수(2002)와 김연선(2008)이 번안 및 수정한 것도 대상 에 구분없이 활용하고 있었다. 최근 개발된 송윤아(2010)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는 국내외 일반적 자기효능감 이론 및 측정도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작되 었으며 단일요인으로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다. 이 도구의 내적 일치 도 계수는 .87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신뢰도 수준임을 확인했다.

기존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분석 결과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도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도구 간 하위요인 구성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일반적인 심리적 자원이라 보는 관점에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측정도구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송윤아(2010)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나. 실패공포

1) 실패공포의 개념 및 측정

실패공포란 개인의 내적 욕구로서 수행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며(Cock & Halvari, 1999), 실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Elliot & Church, 1997). 이러한 실패공포는 지연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지연행동을 반복하는 학습자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인지하는데 회의적이며 회피적인 경향을 보인다(Schouwenburg, 1992). 이들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못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지각한다. 이러한 지각으로 인하여 과제에 도전하여 직면하는 행동을 보이기보다 과제수행과 관련한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인다(Solomon & Rothblum, 1984).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상대와 불안감을 경험한다(Beswick et al., 1988).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의 지연행동의 선행요인이자 학습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실패공포가 고려될 수 있다. 실패공포는 학습자의 동기에 선행하는 요인으로서 특정한 목표성향과 같은 동기적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되기도 한다(Thrash & Elliot, 2002).

이와 같이 실패공포는 간단하게는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변인이다(Ellis & Knaus, 1977). 왜냐하면 실패공포는 실패에 대한 혐오적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하며, 그로 인해 특정 과제를 회피하려는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urka & Yuen, 1983).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식의 노력부족으로 치부하고자 하는 자기 방어적인 전략의 한 방편으로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Flett et al., 1995). 즉, 실패공포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 속에는 실패의 결과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실패공포는 인지행동적 접근에서 인지적 요소로 다뤄지고 있다(Knaus, 2013; Schouwenburg et al., 2015).

Burka와 Yuen(2012)에 의하면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타인에게 또는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비판자로부터의 비난에 대하여 걱정한다.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거나, 최선의 노력도 역부족으로 판명되거나, 달성하지 못한 목표에 대한 책임에 부담을 가지는데, 이러한 걱정들은 모두 실패공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Beery(1975)는 대학생들의 실패공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 실패공포가 성취를 향한 노력을 회피해야 할 위험으로 변질시키는 세 가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나의 성취물은 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능력은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내가 유능할수록 나의 가치감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며, 셋째는 나의 성취물은 인간으로서 나의 가치를 나타낸 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뛰어난 성취를 나타낸다는 것은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으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는 의미이다.

Conroy(2001)는 Lazarus(1991)의 인지적, 동기적, 관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실패공포를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는 척도(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 그는 실패공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번째는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 두번째는 자신에 대한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것, 세번째는 사회적 영향력을 잃는 것, 네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 다섯번째는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후 Conroy, Willow와 Metzler(2002)의 연구에서 세번째 요인을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실패공포가 높은 사람은 과제의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느끼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한다고 하였다(Tice & Bratslavsky, 2000). 행동의지연을 통한 회피는 결국 더 큰 불안을 일으키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또다시 부적응적인 지연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화을 유발한다.

실패공포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실패공포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는 해외 연구자들의 정의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 연행동의 원인으로 실패공포를 지목하며, 실패에 대한 공포로 인해 개인의 동기 가 줄어들어 지연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추상엽, 2008; 김수현, 2016). 추상엽(2008)은 실패공포가 회피목표를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인지통제가 강해지며, 결국 학업지연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박경희(2010)는 실패공포와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지연, 조혜숙(2011)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 효과를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 간에 분명한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실패공포는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인식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부정적인 인식이므로 인지적 변인으로 제안된다. 또한 실패공포는 과제 수행과 관련된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와 자기방어적인 전략을 가지므로 이러한 특성이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2) 실패공포의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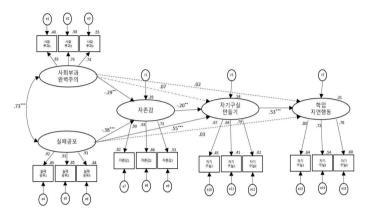
국외에서의 실패공포에 관한 연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과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DeCastella, Byrne, & Covington, 2013). 그들은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동기 부여, 실패에 대한 회복탄력성, 학습에 대한 열정, 자신의 능력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 도전적인 자세를 갖는다고 하였고 실패 공포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이와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이 별도의 차원으로 구분되어 개인은 성공 지향적이거나 실패공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이 연구자들은 두 가지의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4가지의 유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 [그림 Ⅱ-3]에서는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프로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Ⅱ-3] 성공지향-실패 공포에 따른 유형(DeCastella et al., 2013)

프로필에 따르면 성공지향성과 실패공포가 높은 유형의 사람은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 사람, 성공지향성이 높고 실패공포가 낮은 사람은 낙관주의자, 실패공포가 높고 성공지향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호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 실패공포와 성공지향성이 모두 낮은 사람은 실패를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실패공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청소년과 대학년을 대상으로 학업무기력, 학업지연행동, 사회부과적완벽주의 등의 변인과 함께 연구되어왔다. 백지은, 이승연(2016)은 부모의 심리적 통자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단순매개효과가 유의할 뿐만아니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실패공포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실패공포를 증가시킴으로써 학업지연행동에 기여하였으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강한 중학생은 실패공포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결국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Ⅱ-4] 사회부과완벽주의, 실패공포, 자존감, 자기구실만들기, 학업지연행동의 구조 모형(신재욱, 홍정순, 2021)

이주연, 정현희(2020)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패공포는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를 통해서 학업지연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밝혔고, 신재욱, 홍정순(2021)은 [그림 Ⅱ-1]과 같은 모형을 통해 대학생의 사회부과완벽주의와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공포, 자기구실 만들기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자존감과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존감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완전 이중매개효과와 직접적으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실패공포는 연령이나 대상에 관계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유발하거나 수행해야 할 행동을 억제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수로서 학업과 유사한 개념인 진로 결정의 지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진로의사결정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1)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개념

완벽주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그 정의와 강조점이 다양하게 구분된다. Burns(1980)는 개인이 불가능한 목표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자신에게 스스로 설정하고, 이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신에게 비관적인 사람의 특성을 완벽주의라고 정의하였다. Pacht(1984)는 완벽주의가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리적인 관점에서의 완벽주의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Pacht의 관점과 다르게 Hamachek(1978)은 완벽주의를 일반적 완벽주의와 신경증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설명하려하였다. 정상적 완벽주의(Normal Perfectionism)는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허용적인 상황에 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으며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신경증적 완벽주의(Neurotic Perfectionism)는 어떠한 일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없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박현주, 정대용, 2010).

이처럼 완벽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관점이나 개념으로 설명되기보다 다측면적인 접근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Frost, Marten, Lahart 그리고 Rosenblate(1990)는 여섯 가지 차원으로 완벽주의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Frost와 그의 동료들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제작하였다. Hewitt과 Flett(1991)도 역시 완벽주의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였다. 이들은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의 세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완벽주의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완벽주의가 개인 내적인 인지과정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다룰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까다로운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여,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며 실패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동기적 요소를 구성요소로 포함한다.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타인의

수행에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는 특성을 보인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에 의해 높은 기준이 획득된 완벽주의다. 이는 타인이 비현실적인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타인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완벽해져야 한다는 압력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Hewitt과 Flett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를 제작하였다.

완벽주의는 주로 병리적인 증상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완벽주의는 성격장애(Hewitt, Flett & Turnbull, 1992), 높은 수준의 우울(김병직, 이동귀, 이희경, 2012; 이태영, 송미경, 2017; Hawley, Ho, Zuroff & Blatt, 2006; Hewitt & Dyck, 1986; Rice, Ashby & Slaney 1998)과 불안(Saboonchi & Lundh, 1997) 그리고 낮은 수준의 자존 감(Ashby & Rice, 2002) 등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완벽주의들이 비일관적으로 부정적 심리변인들과의 관계를 보이 는 것에 비하여(이희경, 2016),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심리적 변인들과 일관적으로 정적상관을 보인다. 그리하여 부정적 심리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 기 위해 더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존감. 통제소 재. 성취동기와 같은 긍정적인 변인들의 상관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적상관을 보 였으며(Klibert, Langhinrichsen-Rohling & Saito, 2005), 우울, 자살 경향, 불안. 수치심, 죄책감 등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이문선, 이동훈, 2014). Klibert 등의(2005) 연구결과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Hewitt과 Flett(1991) 가 제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특성과 유사하게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심리변인 들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지만, 이와 다르게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연구에서 긍정 적인 심리변인들과의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 회부과 완벽주의는 개인이 실패를 경험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더욱 높은 수준 으로 경험하게 하는 예측요인이었으며, 일의 성공이나 실패의 사실관계와 상관 없이 낮은 수준의 자부심과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기도 하였다(Stoeber, Kempe & Keogh, 2008).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개인의 성격이 아닌 외적인 변인들과 주로 정적상관을 보이며, 여러 종류의 완벽주의 중 유일하게 불안 척도 내에 포 함되는 요인들 전체와 정적상관을 보이는 완벽주의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Stoeber, Feast & Hayward, 2009). Childs와 Stoeber(2012)는 좋단 연구를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스트레스와 소진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조절변인 역할을 하여 더욱 높은 수준으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으로 진술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 되었다(Laurenti, Bruch & Haase, 2008).

2)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측정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측정은 유일하게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 MPS)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H-F MPS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Hewitt과 Flett(1991)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측정도구를 한기연(1993)이 번안한 도구를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기연(1993)이 번안한 H-F MPS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도구는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준의 수준과 내가 완벽하도록 압력을 주는 정도를 설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척도에는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이 그 기준에 맞도록 압박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치도는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서는 .87으로 보고되었고 국내 연구중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는 .76, 홍성권(2018)의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나서 측정 도구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변인 간의 관계

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을 극단으로 하는 연속 선상 의 한 지점으로 정의한 김봉환(1997)의 개념 속에 진로미결정과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몇몇 존재한다.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Frost 등(1990)의 FMPS 의 하위 차원들인 실수염려, 수행의심, 부모기대, 부모비난의 경우 연구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차원들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으나, 부적응적인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FMPS의 실수염려, 수행의심, 부모기대, 부모비난과 HFMPS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김빛나, 2010; 박윤아, 2011; 박혜선, 2010; 신민숙, 2006; 이영주, 2005; 이재창, 최인화, 2006; 홍혜영, 안혜선, 2009).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으며 이영주(2005)는 고등학생들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완벽주의 중에서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진로결정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류지연 (200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경(1998)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상담자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의 특수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공 및 실패 경험들을 바탕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고(Bandura, 1997), 이렇게 형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특성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Eden, 2001; Gardner &

Pierce, 1998)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직면하는 특수한 상황에 알맞게 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들어맞는 형태로 연구되어 왔다.

먼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완벽 주의와 진로관련변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완벽주의 는 실수를 줄이고 확실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필요로 한 다. 그리하여 완벽주의를 가진 개인은 의사결정상황에서 주저하거나 고통스러워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Patalano & Wengrovitz, 2007),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는 진로결정과 관련되 어 많은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 Leong과 Chiervinko(1996)는 사회부과 완벽주 의는 진로미결정과 정적상관을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벽주의적 영재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하였고, 이로 인해 진로선택 과정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Emmett & Minor. 1993). Ganske와 Ashby(2007)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 때, 적응적 완벽주의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Ganske & Ashby, 2007). 이밖에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부 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 상태와 정적상관을 갖는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다(Khasmohammadi, Noah, Kadir, Baba, Bakhash & Keshavarz, 2010; Lehmann & Konstam, 2011; Page, Bruch & Haase, 2008; Roll & Arthur, 2002).

다음으로 완벽주의를 가진 개인은 성공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욕망을 지니게 하며, 목표를 성취한다는 주관적인 지각을 방해하여 개인의 유능감을 낮춘다. 이러한 완벽주의의 특성은 성취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낮춘다(Burns, 1980). 자기효능감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성취경험, 대리적 경험, 정서적 각성, 언어적 설득은 완벽주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 완벽주의는 자기 비판적인 사고로 인해 낮은 수준의 효능감을 보고하며,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어 성취 경험을 얻지 못한다(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3). Dunklev와 Blankstein(2000)의 연구에서 역기능적 완벽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언어적 설득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지를 더 적게 수용한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 Kavanagh와 Bower(1985)의 실험에서 그들은 행복, 중립정서, 슬픈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발했을 때, 행복, 중립정서, 슬픔 정서의 순서로 높은 자기 효능감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 완벽주의의 수준 에 따라 달라진 정서적 각성이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비효율적이고 자기비판적인 성향을 다른 완벽주의와 공유 하며(Childs & Stoeber, 2012; Stoeber, Kempe & Keogh, 200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이 Bandura의 자기효능감과 이 구성요소 네 가지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Betz & Hackeet, 1981), 이러한 선행연구들 을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부적인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초심상담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도 부적인 영향을 확인한 연구(지인구, 주영아, 2019)가 존재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을 상담자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위기대처 자기효능감. 상담태도 자기효능감에 대한 모형도 상정하였는데 모두 부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천경희, 송영명, 2012)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신정민 외, 2014)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 에서는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으로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 부과 완벽주의로 구분하여 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스로에게 높은 기 준을 부여하고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려는 성향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자신 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제히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특수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부과 완

벽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일제히 보고 되었다. 따라서 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작용하기 전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의해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

실패공포는 개념적으로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패로 인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실패공포가 과업을 미루는 행동인 지연행동과 깊은 연관을 나타내었고, 진로의사결정 또한 대학졸업예정자의 과업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지연행동을 통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지연행동은 과제를 미루는 행동(Burka & Yuen, 1983), 또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하거나 미루는 특성 또는 행동 경향(Milgram & Tenne, 2000)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지연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가다양하다는 점이 지연행동의 이해와 연구 및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어려움 중의하나가 되고 있다(Ferrari et al, 1995; Steel, 2002).

지연행동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지연에 대한 기준이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미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지연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미루는 행동은 고의적으로 계획될 수 있으며, 하나의 현명한 책략으로 쓰일 수도 있다. 지연행동이 대체로 자기 패배적인 행동이지만, 자신의 이익에 따른 행동이거나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도 있다는 직관적인 견해도 있다(Ferrari, 1994). 그러나 지연행동은 이러한 고의적으로 계획된 연기와는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이 경우에 따라 지연을 할 수 있지만, 지연행동을 특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때에도 지연을 한다(Van Eerde, 2003). 또한 합리적 또는 기능적인 지연, 그리고 미래의 더 큰 만족을 위해 현재의 좌절을 참고 기다리는 욕구충족의 지연(delay of gratification)과 역기능적인 (dysfunctional) 지연행동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McCown &

Roberts, 1994).

Ellis와 Knaus(1977). Silver와 Sabini(1981). Burka와 Yuen(1983)은 지 연행동의 비합리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즉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도록 비합리적 이며 역기능적인 미루는 행동을 지연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더해 Solomon 과 Rothblum(1984)은 지연행동을 '주관적인 불편감을 경험할 때까지 불필요 하게 과제를 미루는 행동'이라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미루는 행동이라는 정의 '불필요함' (Ellis & Knaus. 1977). 즉 비합리성과. '주관적 불편 감' (Burka & Yuen, 1983)을 부가시킨 것이다. 이 정의에서 불필요함의 기준 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늦게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경우가 지연 행동은 아니며, 불필요한 경우에도 지연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주관적 불편감의 기준은 너무 제한적인데, 지연행동이 항상 주관적인 고통 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Ferrari et al., 1995), 지연행동은 비합리성 을 나타내는 변인들(예: 비합리적 신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난 연구결과들이 있 었고(Beswick, Rothblum, & Mann, 1988; Bridges & Roig, 1997), 다른 연 구들에서는 지연행동이 주관적 불편감과는 상관이 낮거나 별개의 차원임을 밝혔 다(Milgram, Gehrman, & Keinan, 1992; Milgram, Marshevsky, & Sadeh, 1995).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지연행동은 해야 할 과제를 타당한 이유나 목적이 없이 비합리적으로 미루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연행동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미룬다는 점에서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김덕주, 권혁철, 2013)에서 실패공포 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특수 자기효능감이 특정한 영역에서의 외현적, 정서적 행동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갖는다는 점에서(Chen, Gully, & Eden, 2001) 특수 자기효능감 중 하나인 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관련 변인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수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Bandura, 1977) 것으 로 알려져 있고, 특히 진로와 관련해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직업세계에서 얼마 나 잘 수행을 하는지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Hackett & Betz. 1995). 또한 김아 영(1997)은 개인의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경험이 그 개인 이 어떤 과제에 임할 때 자신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과제에 임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기효능감도 특정 행동의 수행수 준을 예측할 수 있는 동기 변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chen et al(2000)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실행하는 동기적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는 데, 그렇다면 진로의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로 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Lent et al.(2000)은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진로 기회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적 극적으로 조언자를 찾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로에 관한 정보를 구한다고 하였 고 김지연 외(2014)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의 선행변인으로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메타분석을 사용한 이미진(2013)의 연구에서도 자기효 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높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직업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마. 실패공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실패공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지현(2021)과 한영숙(2011)의 연구가 있다. 두 연구에서 실패 공포는 일관되게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패공포 또한 전술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와 유사한 논지로 특수적 자기효능감과의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반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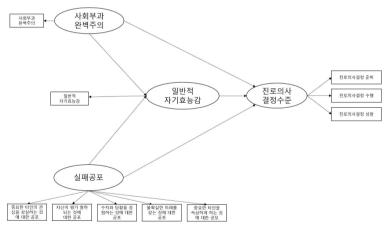
우선 김홍섭과 김정섭(2015)의 학업 자기효능감과 실패공포 간의 연구와 통해 실패공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관계를 보일 것을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박경희(2010)의 연구에서는 실패공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유의한 부적상관과 부적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미영(2015)의 연구에서도 실패공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적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패공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연구한 것은 미비하지만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두 변인 간의 유의한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Hackett & Betz(1981)는 진로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것이 능력, 흥미 등이 아닌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김아림과 강진령(202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실패공포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Hackett & Betz(1981)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졸업 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는데에 있다. 이에따라 관련 이론과 변인별 관련 연구를 고찰하고 실증적인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그림 Ⅲ-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 모형에서의독립변인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이고, 매개변인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며 종속변인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이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연구 모형에 따른 연구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수준 간 구조 모형은 변인 간 관계를 예측하는 데 적합할 것이다. 둘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일반적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연구 모형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일반적 자기효능감,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잠재변인이고 각 잠재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관찰변인을 설정하였다. 우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단일 관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실패공포의 경우는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 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진로인식, 진로정보분석, 진로환경관리, 주의 집중, 진로 정체감 형성, 진로 안정감 형성으로 관찰변인을 설정하였다,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4학년 이상의 졸업예정자로 설정하였다. 2020년 교육통계연보의 대학 설립별 학년별 학생수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일반 대학의 수는 191개였으며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4학년 이상인 학생 520,659명이었다. 학교의 지리적인 위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비수도권으로 나눈 결과, 수도권의 일반대학교의 수는 71개였으며 졸업예정자는 222,759명(42.7%), 비수도권의 일반대학교의 수는 120개였으며 졸업예정자는 297,900명(57.3%)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일반대학의 졸업예정자와 비수도권 일반대학의 학교 수와 졸업 예정자의비율은 모두 약 2:3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III-1〉은 지역별 일반대학교의수와 졸업예정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Ⅲ-1〉지역별 일반대학교 수와 졸업예정자의 수

	지역	전체	
		학교 수(개)	학생 수(명)
수도권	서울	38	148,862
	인천	3	12,085
	경기	30	61,812
수도	권 합계	71	222,759
	부산	12	9,503
	대구	3	15,037
	광주	10	20,227
	대전	11	27,688
	울산	2	5,961
	세종	2	4,461
-11± 2	강원	8	23,584
	충북	11	22,575
	충남	13	37,982
	전북	8	20,181
	전남	10	10,656
	경북	18	36,237
	경남	10	19,412
	제주	2	4,509
비수되	E권 합계	120	297,900
-	총계	191	520,659

나. 표집

표집은 모집단을 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 모형 분석을 위해 필요 한 최소 표본수와 관련하여서는 학자별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Kreicie & Morgan(1970)은 모집단의 수가 5만 명 이상이라면 표본 크기가 381명 이상 이면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고, 류근관(2013)은 사회과학 연구 에서는 일반적으로 300명 이상이라면 신뢰할 만한 표본 집단으로 제시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최소 기준인 300명을 표집하기 위해 미응답 과 불성실 응답을 고려하여 400명을 목표 표본 수로 설정하였고 층화군집비율 표집을 시행하였다. 1차 지역별 표집 과정에서 전국 일반 대학의 소재지와 수에 따라 수도권은 4개교 160명, 비수도권은 6개교 240명을 표집하였다. 1차 지역 별 표집 이후에는 2차로 성별에 따른 표집에서는 남녀의 비율을 1:1로 하여 수 도권에서 학교별로 각각 80명씩 표집하고 비수도권에서는 학교별로 각각 120명 씩 표집할 것이다. 또한 표집 과정에서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에 속해있는 학생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의 학생과는 다르게 전공의 특수성이 강하고 직업을 가질 때 자격시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독립 변인들 과 무관하게 진로가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서 표집과정에서 제 외하였다.



[그림 Ⅲ-2] 층화군집비율표집 방법 및 절차

3.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구조적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 과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 도구를 구성하였다. 조사 도구는 진로의 사결정 수준 측정 도구 총 29문항,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총 10문항, 실 패공포 측정 도구 총 25문항, 사회부과 완벽주의 측정 도구 총 15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을 포함시켰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Ⅲ-2〉 측정도구의 구성

잠재변인	관찰변인		문	<u></u> 항수	측정	출처
	진로	진로 인식	4			
진로의사 결정 수준	의사 결정 준비	진로 정보 분석	5	29	5점 리커트 형	조규형(2018)
1 -	진로	진로 환경	4		0	

잠재변인	관찰변인		문	항수	측정	출처
	의사	관리				
	결정 수행	주의 집중	5			
	진로 의사	진로 정체감 형성	5			
	결정 성찰	진로 안정감 형성	6			
일반적 자기효능 <u></u> 감		일 영역		10	5점 리커트 형	최동선(2003)
	관심 것에	한 타인의 을 상실하는 대한 공포	5			
	평가절 다	자신이 하되는 것에 한 공포	4			Conroy, Wilow, &
실패공포	경험하	와 당황을 는 것에 대한 공포	7	25	리커트 a	Wilow, & Metzler(2002) 의 도구를 임성문(2005)
	갖는	실한 미래를 것에 대한 공포	4			이 번안
	속상하	한 타인을 게 하는 것에 한 공포	5			
사회부과 완벽주의			15	7점 리커트 형	Hewiit & Flett(1991)의 도구를 한기연(1993) 이 번안	
인구통계 학적 특성		교 소재지 공 계열 성별		3	-	-

가. 진로의사결정 수준

이 연구에서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조규형

(2018)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 요인으로 진로 인식, 진로 정보분석, 진로 환경 관리, 주의 집중, 진로 정체감 형성, 진로 안정감 형성을 갖고 총 29문항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점수는 문항의 평균을 통해 학년별, 전공별 원점수에 따른 표준점수(T점수) 및 백분위를 요약한 규준표에 근거하여 해석한다.

'진로 인식'은 4문항으로 개인이 스스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동기, 가치 등을 부여하는 내적 과정을 진행한 정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나의 진로를 위해 서 1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느낀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진로 정보 분석'은 개인이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과업, 가능성 등의 정 보를 분석한 정도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본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환경 관리'는 개인이 진 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및 상황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관리하는 정도로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 집중' 은 개인이 진 로의사결정과 과련된 수행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로 '나의 진로를 위한 활동들을 할 때 집중이 잘 되는 편이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정체감 형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능력, 태도, 기대 등과 관련하여 일관된 자아상을 형성한 정도로 '나는 노력하면 원하는 일 을 할 수 있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 안정감 형성' 은 개인 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 모호함 등 부적 정서에 대처하는 안정감을 형성한 정도로 '나는 진로 결정에 따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다.' 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3>은 하위 요인별 문항 번 호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의 예비 조사(n=108)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진 로의사결정 준비 .808, 진로의사결정 수행 .889, 진로의사결정 성찰 .911로 모 두 적절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에서의 내적일치도 또한 진로의사결정 준비 .803, 진로의사결정 수행 .892, 진로의사결정 성찰 .904로 모두 0.7이상의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Ⅲ-3〉 진로의사결정 수준 측정도구 하위 요인별 문항

영역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내적일치도 계수 (n=108)	내적일치도 계수 (n=377)
진로의사	진로 인식	1, 2*, 3*, 4*	.808	.803
결정 준비	진로 정보 분석	5, 6, 7, 8, 9	.000	.803
진로의사	진로 환경 관리	10, 11, 12, 13		.892
결정 수행	주의 집중	14, 15, 16, 17, 18	.889	
진로의사 결정 성찰	진로 정체감 형성 진로 안정감	19, 20, 21, 22, 23 24*, 25*, 26*,	.911	.904
	형성	27*, 28*, 29*		
	전체		.930	.925
*어케저 ㅁㅎ				

^{*}역채점 문항

나, 일반적 자기효능감

이 연구에서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송윤아 (2010)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이론 및 측정도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단일요인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도구는 총 10문항, 5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4〉은 하위 요인별문항 번호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이전 연구에서 .87로적절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n=107)에서 .926, 본조사(n=377)에서 .940으로 적절하게 보고되었다.

〈표 Ⅲ-4〉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하위 요인별 문항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내적일치도 계수 (n=108)	내적일치도 계수 (n=377)
일반적 자기효능감	1, 2, 3, 4, 5, 6, 7, 8, 9, 10	.926	.940
전체		.926	.940

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와 Flett(1991)이 만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를 사용하였 다. H-FMPS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 의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타인지향 완벽주의와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자기지향 완벽주의를 제외하고, 부정적이 고 신경증적 완벽주의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차원만을 사용하였다(Flett, Hewitt, Blankstein & O' Brien, 199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 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부과한다는 생각과 이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 려움을 반영하고 있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되기 때문이다(이유미, 정주 리, 2016; 한기연, 1993; Hewitt & Flett, 1991).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Likert식 7점 척도이며, 역채점 문항은 2. 6. 8. 12, 15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 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Hewitt과 Flett(1991)의 연구에서는 .87으로 보고되 었고 국내 연구중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는 .76. 홍성권(2018)의 연구에서 는 .79로 나타나서 측정도구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n=107)에서 .825. 본조사(n=377)에서 .866 으로 적절하게 조사되었다.

〈표 Ⅲ-5〉 사회부과 완벽주의 측정도구의 구성

구분	문항 번호	내적일치도 계수 (n=108)	내적일치도 계수 (n=377)
사회부과 완벽주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825	.866
전체		.825	.866

^{*}역채점 문항

라. 실패공포

실패공포 척도는 Conrov. Wilow와 Metzler(2002)가 고안한 PFAI-R(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을 임성문 (200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 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 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 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의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4 문항,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7문항,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 에 대한 공포 4문항,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까지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실패공포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 처리 시 12번 문항은 역채점한 후 사용할 계획이다. 실패공포 척도 문항의 예로 는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나의 미래는 불확실해 보인다.', '내 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고 있을 때, 나는 쉽게 나 자신을 나무란 다.' 등이 있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는 윤희정(2016)의 연구에서 .957 로 나타났으며, 5개의 하위요인의 내 Cronbach's α는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880.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811. 수 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896.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834,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851로 전체적으로 적 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내적일치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PEAI-R 도구의 문항을 그대로 설문에 활용할 계획이고 <표 Ⅲ-6>은 실패공 포의 하위 요인별 문항 번호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n=107)에서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57,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96,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 한 공포는 .632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는 .883,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27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n=377)에서도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32,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96,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45, 불확 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는 .642.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10으로 나타났다. 예비 조사와 본 조사에서 낮은 수준의 내적 일 치도를 나타낸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내적일치도 적합 판정 기준(>.70)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를 측정하는 각 문항을 제거하여 내적일치도 검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2번 문 항인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이로 인해 나의 미래 계획이 영향받 게 될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를 제거하였을 때 내적일치도 계수가 .775로 나타나서 유의미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체 설문 문항에서 12번 문항만 역채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하였다.

〈표 Ⅲ-6〉PFAI-R를 활용한 실패공포 측정도구 하위 요인별 문항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내적일치도 계수 (n=108)	내적일치도 계수 (n=377)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내적일치도 계수 (n=377)	
중요한 타인의	11				
관심을	13	057	000		
 상실하는 것에	17	.857	.832	-	
대한 공포	21				
	23				
자신이	1				
평가절하되는	4	.825	.825 .896 -		
것에 대한	7				
공포	16				
	10				
	15				
수치와 당황을	18				
경험하는 것에	20	.883	.845	-	
대한 공포	22				
	24				
	25				
불확실한	2			.642	
미래를 갖는	5	.632	.642	.508	
것에 대한	8	.002	.042	.413	
공포	12*			.775	
중요한 타인을	3				
속상하게 하는	6				
국경에게 하는 것에 대한	9	.827	.810	-	
것에 대한 공포	14				
	19				
전치		.927	.953		

^{*}역채점 문항

4.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예비조사 1번과 본조사 1번, 총 2번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예비조사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4년제 대학의 대학생 중 4학년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수도권 대학교 협력자 2인과 비수도권 대학교 협력자 3인을 섭외하여 온라인 URL을 통해 조사하였고 총 참여자는 108명이었다. 그리고 불성실 응답을 방지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후에 모바일 상품권을 송부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본조사는 2022년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루어졌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4학년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예비조사와 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391명이었다. 본조사도 예비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URL을 활용하여 진행되었고, 불성실 응답 14부를 제외한 총 377부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일반적 자기효 능감, 진로의사결정수준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따라 STATA 14.2을 활용하여 측정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 분석 및 타당도 분석(확인적 요인분석), 기술통계,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R의 lavaan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통상적으로 사회과학에서 설정하는 0.05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연구목표에 따른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표 Ⅲ-7〉 연구목표와 통계 분석방법

 구분	연구목표	통계분석방법
기술통계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기술통계
연구가설 1.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영향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연구가설 2.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1.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가설 2-2.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석
연구가설 2-3.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진로의사결 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4.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5.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일반적 자 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간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3-1.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구조방정식 부트스트래핑
연구가설 3-2.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IV-1 참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77부로 각 특성에 따른 분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86명으로 49.3%, 여성이 191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학년은 4학년 학생이 279명으로 74%, 5학년 학생이 98명으로 26%를 차지하였다. 학생들의 전공계열은 인문계열이 76명으로 20.2%를 차지하였고 사회계열이 115명으로 30.5%, 공학계열이 109명으로 28.9%, 자연계열이 56명으로 14.9%, 예체능계열이 21명으로 5.6%로 나타났다. 대학교의 소재지에 대한 응답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은 총 150명으로 39.8%, 그 외의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은 227명으로 60.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모집단의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N-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로	빈도	백분율(%)
	남성	186	49.3
성별	여성	191	50.7
	계	377	100
	4학년	279	74.0
학년	5학년	98	26.0
	계	377	100
	인문계열	76	20.2
	사회계열	115	30.5
계열	공학계열	109	28.9
게걸	자연계열	56	14.9
	예체능계열	21	5.6
	계	377	100
	수도권	150	39.8
지역	비수도권	227	60.2
	계	377	100

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및 정규성 검증

가.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및 정규성 분석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과 정규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2〉에 제시되어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잠재변인인 진로의사결정 수준, 실패공포는 복수의 관찰변인으로 측정되었지만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단일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우선 종속변인인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찰변인들의 평균은 진로인식(4.11점), 진로 정보 분석(3.85점), 진로 정체감 형성(3.71점), 진로환 경관리(3.59점), 주의집중(3.58점), 진로 안정감 형성(2.9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독립변인이면서 관찰변인이 단일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54점으로 나타났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의의 평균은 2.89점으로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실패공포의 관찰변인 평균은 자신이 평가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 (3.14점),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3.14점),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3.11점),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2.83점),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2.70점)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변 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의 만족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다변량 분석의 가정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기본적으로 하고, 정규성 (normality)이란 수집된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과 다변량 정규성 (multivariate normality)으로 나눌 수 있다. 관측변인들 전체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다변량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자료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변량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통해 일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여 크게 정규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line, 2011). 왜도는 자료에서 분포유형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절대값이 커질수록 정규분포의 주요 가정 중 하나인 대칭성에 위배된다. 첨도는확률분포의 꼬리가 두꺼운 정도를 나타내며 극단적인 편차나 이상치가 많을수록 높은 값을 갖고 3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

이 연구에서의 일변량 정규성 만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관찰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Kline(2011)이 제안한 절대값 기준(왜도 3, 첨도 10 이 내)에 부합하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최대우도법을 활용하기 위한 기 준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다.

〈표 N-2〉 관찰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잠재 변인		·찰 이	최솟값	최댔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진로 의사	진로 인식	1.333	5	4.11	.858	892	.09
	크사 결정 준비	진로 정보 분석	1	5	3.85	.602	821	222
진로	진로 의사 결정	진로 환경 관리	1	5	3.59	.728	512	.173
의사 결정	수행	주의 집중	1	5	3.58	.759	558	.282
준비	진로 의사	진로 정체 감 형성	1	5	3.71	.760	709	.761
	결정 성찰	진로 안정 감 형성	1	5	2.96	.894	.163	533
일반	난적 자기효	능감	1.00	5.00	3.54	.712	566	.732
	관심을	타인의 상실하는 I한 공포	1.00	5.00	2.70	.830	.193	211
	프 절하 도 대한	Ⅱ 평가 는 것에 - 공포	1.00	5.00	3.14	.878	253	352
실패 공포	경험하 대한	당황을 는 것에 공포	1.00	5.00	3.11	.866	259	340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1.25	5.00	3.14	.677	.005	374
	속상하 것에 다	타인을 게 하는 한 공포	1.00	5.00	2.83	.817	050	371
	기부과 완벽	주의 주이느 7저	1.4	4533	2.89	.508	.112	.213

주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7점 척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였음.

나. 변인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기초행렬인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 행렬은 다음 <표 IV-3>과 같다. 잠재변인별 관찰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대부분 유의하였지만 진로 인식-진로 환경 관리, 진로 인식-주의 집 중, 진로 인식-진로 정체감 형성, 진로 인식-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N-3〉관찰변인간 상관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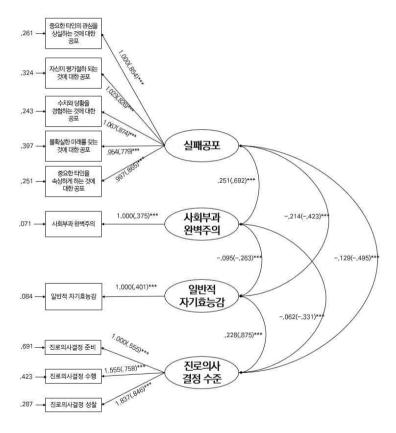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진 로	1. 진로의사결정 준비	1									
의 사 결	2. 진로의사결정 수행	.472***	1								
정 수 준	3. 진로의사결정 성찰	.409***	.611***	1							
	. 일반적 자기효능감	.347***	.723***	.707***	1						
	5. 중요한 타인의 관 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353***	208***	512***	313***	1					
실	6. 자신이 평가 절하 되는 것에 대한 공포	206***	332***	652***	417***	.648***	1				
ョ 패 공 포	7. 수치와 당황을 경 험하는 것에 대한 공 포	202***	321***	614***	417***	.758***	.743***	1			
至	8.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184***	273***	572***	308***	.623***	.737***	.666***	1		
	9. 중요한 타인을 속 상하게 하는 것에 대 한 공포	327***	274***	543***	317***	.810***	.680***	.727***	.654***	1	
10). 사회부과 완벽주의	241***	208***	414***	-264***	.593***	.553***	.613***	.538***	.620***	1

주1) *p<.05, **p<.01, ***p<.001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가.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모형상관행렬이 표본상관행렬에 부합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그림 N-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이 때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8가지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먼저 절대적합지수는 모델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합도 검정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론모델이 관찰된 공분산 행렬을 예측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χ^2 , GFI(Goodness of Fit Index), AGFI(Adjusted GFI),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둘째, 증분적합지수는 기초모델에 비해 제안모델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증분적합지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TLI(Tucker 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FI(Rel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구체적인 적합도 판단기준은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절대적합지수는 RMR .048, GFI .923, AGFI .819로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가 .05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서 기준값을 하회하였지만, 사례수가 250개보다 크고 총 변수의 수가 12개 미만인 경우에는 모형의 적합도가양호하더라도 χ^2 의 결과가 비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Hair, Anderson, Babin, & Black, 2010)과 χ^2 값이 표본크기, 관찰변인의 상관계수, 정규분포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χ^2 값을 활용하여 생성된 SRMR, RMSEA 등의 절대적합지수를 함께 보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강현철, 송요석, 2021)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중분적합지수는 TLI .937, NFI .901, CFI .911로 나타나서 각각의 값들이 적합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표 Ⅳ-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적합도 판단기준

구분	적합도 지수	적합도 기준	결과	해석
	χ^2	≥.05	.000	부적합
	RMR	≤.05	.048	적합
절대적합지수	GFI	≥.90	.923	적합
	AGFI	≥.80	.819	적합
	RMSEA	≤.08:이하 양호 ≤.10: 적합	.087	적합
	TLI	≥.90	.937	적합
증분적합지수	NFI	≥.90	.901	적합
	CFI	≥.90	.911	적합

나. 확인적 요인분석의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해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합성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5〉에 제시하였다. 수렴타당도의 적합성 기준과 관련하여 요인부하량은 수렴적 타당성을 검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써 측정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표준화된 요인부하 추정치가 0.5 이상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Bagozzi & Yi, 1991). AVE는 표준화된 부하량의 제곱값을 모두 합한 값을 표준화 부하량의 제곱값의 합과 오차변량의 전체 합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전체 변량 중에 관측변인에 의해 설명된 평균 변량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0.5 이상일 때 요인이 관측변인과 타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06). CR는 잠재 변수들에 대한 측정 변수들의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신뢰도가 높을수록 내적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를 도출하는 방법은 AVE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AVE에서는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의 제곱의 합을 사용하고 CR은 요인부하량 합의 제곱을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0.7 이상의 값이 나타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진로의사결정 수준에서는 잠재변인의 AVE가 .619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CR이 .879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관측 변인인 진로의사결정 수행, 진로의사결정 성찰의 표준화 계수는 모두 .5이상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하지 만 진로의사결정 준비의 경우에는 표준화계수가 .456으로 기준치보다 낮게 나 타났다. 우종필(2016)은 이와 관련하여 요인부하량이 기준치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면 제거해도 무방하지만, 중요한 변수일 경우 낮은 요인부하량 때문에 중요한 항목을 제거한다면 구성 개념의 본질적인 의미가 달 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로 인식은 진로 정보 분석과 함께 진로 의사결정 준비 잠재 변인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기준치에 조금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못 미치는 수치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진로 인식은 스 스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동기, 가치 등을 부여하는 내적 과정을 진행한 정도 로 정의하였지만, 진로인식의 첫 번째 설문 내용인 '나의 진로를 위해서 1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느낀다.'에 높은 점수로 답한 응답자도 응답 시점에서 막연하게 진로에 대한 필요성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 로인식의 두 번째 역문항인 '나는 시간이 아직 많아 진로나 직업에 대해 생각 하고 싶지 않다.', 세 번째 역문항인 '나는 현재 진로를 결정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네 번째 역문항인 '지금 진로를 결정해 봤자 내게 도움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와 같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문하는 문항에도 높은 점수로 응답할 수 있다. 이에 진로 인식의 설문 문항들은 진로의사결정 수 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단일 요인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요인부하량이 각각 .401과 .37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실패공포는 관측 변인인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의 표준화계수가 각각 .858, .823, .874, .774, .868로 0.5보다 큰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VE가 .767, CR이 .943으로 나타나서 모두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였다.

⟨표 IV-5⟩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	 구분	В	В	S.E.	AVE	C.R.
진 로	진로의사결정 준비	1.000	<u>.</u> 456	-	7.112	
의 사 결 정 수 준	진로의사결정 수행	2015***	.733	.236	.619	.879
수 준	진로의사결정 성찰	2506***	.861	277	-	
잍	반적 자기효능감	1.000***	.401	-	-	-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1.000	.858	-		
실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1.014***	.823	.050		
패 공 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1.063***	.874	.047	.767	.943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944***	.774	.052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995***	.868	.045		
	사회부과 완벽주의	1.000***	.375	-	-	-

주1) *p<.05, **p<01, ***p<.001.

주2)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단일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신뢰도)*관찰변인의 분산'을 관찰변인의 오차분산으로 직접 지정하였음.

진로의사결정 수준에서 진로의사결정 준비가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하위 요인 중 진로 인식을 제외하고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등에서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관측변인들의 요인부하량도 .5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타당도를 확보하였다(<표 IV-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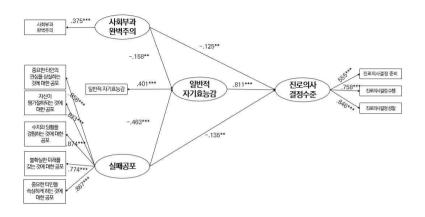
〈표 Ⅳ-6〉 진로인식 삭제 후 확인적 요인분석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

	구분	В	β	S.E.	AVE	C.R.
진 로 의	진로의사결정 준비	1.000***	.555	-		
사 결 정	진로의사결정 수행	1.555***	.758	.146	.731	.888
정 수 준	진로의사결정 성찰	1.837***	.846	.163		

4.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 경로계수 분석 및 모형 적합도 검정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타당도, 신뢰도,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구조모형에서 잠재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good)을 활용하였다. 최대우도법은 어떤 확률변수에서 표집한 값을 통해 그 확률변수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확률밀도함수를 통해 주어진 표본이출현할 확률밀도가 가장 높아지도록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조방정식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추정방식이다. 최대우도법을 토대로 한 구조모형의 경로 계수 분석 결과는 [그림 IV-2]과 같다.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가설 1.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 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영향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구조 모형의 경로 계수를 분석함과 동시에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절대적합지수인 RMR(.480), GFI(.923), AGFI(.819), RMSEA(.087)와 증분적합지수인 TLI(.937), NFI(.901), CFI(.911)가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가설 1을 채택하였다.

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실패공포의 직접효과

진로의사결정 수준,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의 직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B), 표준화 된 경로계수(B), 표 준오차 그리고 CR을 도출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는 <표 IV-7>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IV-7> 직접효과 분석 결과

구분	В	β	S.E.	C.R.
사회부과 완벽주의 → 진로의사결정 수준	119	129	.031	-2.374**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일반적 자기효능감	182	159	.094	-2.280**
실패공포 → 진로의사결정 수준	-168	358	.028	2.730**
실패공포 → 일반적 자기효능감	467	465	.072	-5.674***
일반적 자기효능감 → 진로의사결정 수준	.341	.731	.031	8.905***

주1) *p<.05, **p<.01, ***p<.001

가설 2-1.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경로에서 β 는 -.129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1을 지지하는 결과로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정도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즉, 대학졸업예정자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이 자신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완벽함을 요구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가설 2-2.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에서는 β 가 .731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즉 대학졸업예정자들이 다양한 성취 상황에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인 유능감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의사결정 수준 또한 증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가설 2-3.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경로에서는 β 가 -.358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3을 지지하는 결과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실패공포 정도가 진로의사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즉 대학졸업예정자들이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이 강해질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 2-4.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경로에서 β 는 -.159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2-4를 지지하는 결과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정도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설 2-5.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패공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경로에서는 β 가 -.465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2-5를 지지하는 결과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실패공포 정도가 일반적 자기효능 감의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1)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먼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116(-.159*.7311)로 나타났고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유형	경로	직접 효과	<u>간접</u> 효과	총효 과
시하므고 이번즈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일반적 자기효능감	159**	-	159**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일반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 진로의사결정 수준	.731***	-	.731***
→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 진로의사결정 수준	129**	116**	245**

주1) *p<.05, **p<01, ***p<.001.

가설 3-1.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 개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가설 3-1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2)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실패공포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의사결정 수준과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먼저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698(-.465*.731)로 나타났고 95% BI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유형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효 과
시피고고	실패공포 → 일반적 자기효능감	465***	-	465***
실패공포 → 일반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 진로의사결정 수준	.731***	-	.731***
→ 진로의사결정 수준 	실패공포 → 진로의사결정 수준	358**	340***	698**

주1) *p<.05, **p<01, ***p<.001.

가설 3-2.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가설 3-2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학졸업자의 실패공포는 일반적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이다.

5. 논의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 여부를 종합하면 $\langle \mathbf{x} | \mathbf{V} - 10 \rangle$ 과 같다. 첫째, 가설 1과 관련하여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치(RMR \leq .05, GFI \geq .90, AGFI \geq .80, RMSEA \leq .10, TLI \geq .90, NFI \geq .90, CFI \geq .90)를 충족하였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실패공포, 진로의사결정 수준 간 직접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 간의 관계,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 간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표 Ⅳ-10〉 연구 결과 종합

	구분	채택 여부
	가설 1. 구조모형의 적합도	채택
	가설 2-1. 사회부과 완벽주의 → 진로의사결정 수준	채택
직	가설 2-2. 일반적 자기효능감 → 진로의사결정 수준	채택
접 효	가설 2-3. 실패공포 → 진로의사결정 수준	채택
과	가설 2-4.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일반적 자기효능감	채택
	가설 2-5. 실패공포 → 일반적 자기효능감	채택
매 개	가설 3-1.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일반적 자기효능감 → 진로의사결정 수준	채택
효 과	가설 3-2. 실패공포 → 일반적 자기효능감 → 진로의사결정 수준	채택

가. 연구 모형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지연 행동을 유발하는 실패공 포를 선정하였고, 연구 모형을 설정한 결과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측정 모형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판단 기준을 충족하였고, 구조 모형의 적합도 또한 χ^2 값을 제외하고 모든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모든 경로 계수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였다.

최종 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부과 완벽 주의와 실패공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 다.

나. 직접효과에 대한 논의

1)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졸업 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 ($\beta=-.129$, p<.01)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생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부여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영주 (2005)의 연구 결과가 대학졸업예정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상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수준이 낮은 경우를 진로미결정 상태로 여겼던 과거의 연구(김빛나, 2010; 박윤아, 2011; 박혜선, 2010; 신민숙, 2006; 이영주, 2005; 이재창, 최인화, 2006; 홍혜영, 안혜선, 2009)들에서 나타났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부적인 영향 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β =-.159, p<.01)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존에 문경(1998)과 류지연(2002)의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연구를 뒷받침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나 상담자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의 특수적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부정적 영향 관계를 보고한 연구(지인구, 주영아, 2019),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부정적 영향 관계를 보고한 연구(천경희, 송영명, 2012; 신정민 외, 2014)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가진 개인은 성공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욕망을 갖고 있고 스스로의 유능감을 낮추기 때문에 성취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자기 효능감의 수준을 낮춘다는 Burns(1980)의 주장과 함께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자체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받아들여 성취 경험을 엊지 못한다는 연구(Dunkley etc., 2003)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을 낮추고 외부적인 측면에서 타인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자각을 함으로써결과적으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해석할수 있다.

3) 실패공포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β=-.358, p<.001)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실패공포가 지연행동과 강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Thrash & Elliot, 2002)와, 지연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비합리성(Beswick, Rothblum, & Mann, 1988; Bridges & Roig, 1997)이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주어진 과업을 미루게 한다는 연구(김덕주, 권혁철, 2013)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 82 -

대학졸업예정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β =.731, p<.001)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수행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Bandura, 1977)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특정 행동의 수행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동기적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김아영, 1997)와 관련하여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이라는 행동의 수준에도 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진로 기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언자를 찾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구한다는 연구(Lent et al., 2000)와 함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유의미한 정적 영향관계를 밝힌 연구(김지연 외, 2014; 이미진, 2013)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볼 수 있다.

5) 실패공포가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beta = -.465$, p<.001)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중학생의 실패공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유의 미한 부적 영향을 밝힌 연구(임지현, 2016; 한영숙, 2011)의 결과를 대학졸업 예정자의 사례까지 확장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특수한 형태인 학업 자기효능감과의 실패공포 간의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고한 연구(김흥섭, 김정섭, 2015; 박경희, 2010; 구미영, 2015)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과 실패공포 간의 유의한 부적인 상관을 보고한 연구(김아림, 강진령, 2020)를 뒷받침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다.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 83 -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 적 자기효능감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6$, p<.01). 또한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도 총효과와 가접효과는 모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 능감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40$, p<.001). 또한 대학졸업예정자의 실패공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도 총효과와 간접효과는 모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수준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구조모형의적합도는 영향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둘째, 설정한 구조모형에서 진로의사결정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간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질것이다.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졸업예정자로 2020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교 총 191개, 4학년 이상인 학생 520,659명이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수가 각각 222,759명, 297,900명으로 약 2:3의비율이었기 때문에 층화군집비율 표집을 활용하여 표집을 진행하였다. 학교 단위 군집표집을 진행하여 수도권 학교 4개교, 비수도권학교 6개교를 표집하고 각학교 별로 전공계열인 인문계열 76명(20.2%), 사회계열 115명(30.5%), 공학계열 109명(28.9%), 자연계열 56명(14.9%), 예체능계열 21명(5.6%)의 비율로 표집하였다. 이 중 남성은 186명(49.3%) 여성은 191명(50.7%)이었다. 또한 대학 소재지는 수도권 150명(39.8%), 비수도권 227명(60.2%)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도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 효능감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진로의사결정 수준은 조규형(2018)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를 활용하였

고 진로의사결정 준비와 진로의사결정 수행, 진로의사결정 성찰로 관찰변인이 구성되어 있었다. 진로의사결정 준비는 다시 진로 인식 4문항과 진로 정보 분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진로의사결정 수행은 진로 환경 관리 4문항과 주의 집중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진로의사결정 성찰은 진로 정체감 형성 5문항과 진로 안정감 형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각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n=108)에서 본조사(n=377)에서 모두 .7 이상으로 적절하게 보고되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측정 도구는 Hewitt와 Flett(1991)이 만든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기연(1993)이 번역하고 이미화(2001)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때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를 제외하고 부정적이고 신경증적인 완벽주의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관련 15문항만을 단일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되어있었고 예비조사(n=108)에서 .825. 본조사(=377)에서 .866의 적절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공포 척도는 Conrov. Wilow와 Metzler(2002)가 고안한 PFAI-R(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을 임성문 (200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 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 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 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의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4 문항,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7문항,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 에 대한 공포 4문항,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적 절한 내적일치도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 한 공포는 기준치인 .7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항의 제거를 통해 신뢰도를 개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송윤아(2010)가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 감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이론 및 측정도구 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단일요인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도구는 총 10문항이고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각각 .926, .940의 높은 내적일치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자료 수집은 2022년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91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377부였다. 자료의 분석은 STATA 14.2를 활용하여 관찰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정규성 검정을 실시 하였고 R의 활용하여 구조방적식 분석과 모형 적합도 검정,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도 검정 결과 χ^2 을 제외한 절대적합지수가 모두 적합하게 도출되었고(RMR .048, GFI .923, AGFI .819, RMSEA .087), 증분적합지수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LI .937, NFI .901, CFI .911). 둘째,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판단하기위해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 합성신뢰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른 변인들은 모두 적합한 수치를 나타내었지만 진로의사결정수준의 관찰 변인인 진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었고 평균분산추출에 악영향을 주었기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후 진로 정보 분석, 진로 환경관리, 주의 집중, 진로 정체감 형성, 진로 안정감 형성을 관찰 변인으로 수렴타당도 분석을 한결과 각 관측 변인들의 요인 부하량이 모두 .5이상이었고 평균분산추출 .731,합성신뢰도 .888으로 적합하게 도출되었다. 첫째와 둘째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각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구조 모형에서의 직접 효과와 관련하여 대학졸업예정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경로에서 β 는 -.129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수준에서는 β 가 .731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공포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경로에서는 β 가 -.358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반적 자기효능감경로에서 β 는 -.159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공 포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경로에서는 β 가 -.465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넷째, 구조 모형에서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의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118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효과는 -.245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패공포와 진로의 사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는 -.340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효과는 -.698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첫째,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 변인들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공포를 선정하였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구조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주로 특정 전공이나 특수 집단의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를 일반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공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저해하는 주요한 변인들이다. 이 연구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공포는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재 학교, 정부, 기관 등의 단체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고용없는 성장,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행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도 이직률과 조기 퇴직률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로발달단계에서 중요한 단계에 위치한 대학졸업예정자들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탐색함 필요성이 있고 그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공포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셋째,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실패 공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나 실패 공포와 같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매개하였을 때 직접 효과의 곱으로 나타나는 간접효과의 크기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부과 완벽주의나 실패공포와 같은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수준을 낮추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3.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변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관한 간접적인 단서를 제공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여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패공포는 진로 관련 변인과 직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공포로 나타나는 지연행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진로의사결정 수준과의 간접적인 관계를 유추하였다. 이렇게 실패에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실패에 대한 공포는 진로 의사결정 수준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요하게 조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선정한 독립변인 외에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독립변인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부과 완벽 주의, 실패공포를 수준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동안 대학 에서는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진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진로의사결정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대학생활문화원 같은 기관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대학생을 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경감시키고 진취적이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관련 변인의 측정과 관련하여 학년별로 분절된 기준을 설정할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대학생의 학년, 성별과 관계없이 대학생이라는 하나의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남성이 군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학년이나 성별에 따라서 같은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 등의 변인에 대한측정이 학년별, 성별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는지 다집단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철, 송요석. (2021). 정규분포와 지수분포하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의 주요 적합도 지수에 대한 제 2 종 오류 평가.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599-609.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 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가칭)종합인력개발센터 설치 · 운영 계획.
- 김덕주, 권혁철. (2013). 특성화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부적응적 방어기제 및 만성적 지연행동과 진로미결정수준간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0**(3), 587-605.
-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병숙, 김봉환. (1994). 진로미결정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의 연구과제. **한국** 심리학회, **7**(1), 20-43.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 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봉환, 최명운. (2002). 직업카드를 이용한 고등학생의 직업흥미 탐색. **진로교 육연구**, **15**(1), 69-84.

- 김아림, 강진령. (2020).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93-115.
- 김은영. (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종백. (2017). 지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실패교육. 교육심리연구, **3**1(4), 745-766
-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지효.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대학진로지원, 진로준비행동, 진로목표특성의 관계분석; D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977-997.
- 김현홍, 김진강 (2019).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업성 취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환대산업 관련 전공을 하는 지방대학생들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4(2), 103-126.
- 김홍섭, 김정섭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23-244
- 김효선, 이석준, 이현정. (2008). 대졸예정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 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2-201
- 노윤신. (2016).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 불관용에 의해 조절된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농업교육과**

- **인적자원개발, 48**(3), 107-129.
- 류근관. (2013). **통계학**. 법문사.
- 류지연. (2002). **자기효능감 및 완벽주의 성향과지연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경. (1998). **완벽주의 차원과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자기조절학습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교육학연 구, **43**(4), 277-292.
- 박경희. (2010). 실패공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수진, 안성우. (2020).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157-181.
- 백지은, 이승연. (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1), 99-122.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보도 자료(2011). 2011학년도 대학생활 의견조사 주요 결과, https://snucounsel.snu.ac.kr/
- 서진숙. (1998).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진. (2019).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장벽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충북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송윤아. (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 신재욱, 홍정순. (2021).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실패공포와 학업지연 행동의 관계에서 자존감 및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923-939.
- 신정민, 박명숙, 함경애. (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아동의 발표불안과의 관계에서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3-43.
- 안관영, 김민환 (2009). 여대생 졸업예정자들의 진로미결정과 직업탐색활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56**(1), 45-68.
- 양인준, 정진철. (2022). 청년층 대상 국가 재정 지원 정책 사업의 단기성과 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5-205.
- 엄동욱. (2008). 대졸 신입사원의 조기퇴사 실태와 원인: 기업 인적자원관리 (HRM) 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1**(2), 237-260.
- 오층광, 신진철 (2019).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실패공포와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1), 253-277.
- 우종필. (2016). 구조방정식모델의 비판과 고찰. **상품학연구, 34**(4), 83-93.
- 유정선. (2018). 항공서비스 관련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진로탐색 행동. 진로성숙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경영연구. 22(4), 917-939.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진희, 양난미 (2017).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 행동의 관계: 내면 화된 수치심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2 - 312.

- 윤지영, 임정연. (2020). 4년제 대졸자의 진로 및 취업준비행동이 첫 일자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8(4): 181-212
- 윤태일, 김경희, 신소영. (2014). 중학생의 미디어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27**(4), 167-185.
- 이경호. (2010). 성취목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행동의도와 시간관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 서의 자기 - 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 리치료, 12(1), 127-136.
-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변인간의 관계-진로결정수준별 공변량구조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진. (2012). 진로준비행동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원, 김종백. (2019). 학습실패개방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3**3(2), 289-316.
- 이수희, 정갑연, 장용운. (2017). 미용관련학과 대학생의 메타인지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통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3**1(3), 57-81.
- 이영대, 윤형한 (2007).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 럭개발원.
- 이은경, 이혜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

- 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주연, 정현희. (2020). 대학생의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자기효능 감, 자기통제, 대처전략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 집**. 146-146.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연구**, **38**(1), 235-257.
- 임지현. (202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실패공포,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업지 연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학회지. 2. 65-91.
- 정은희.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창곡. (2020). 진로결정여부와 진로미결정 유형에 따른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활동 참여 차이 분석. **사회과학연구, 13**(2), 33-57.
- 정철영, 곽민호, 한효정, 김태환, (2011).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및 경력개 발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 조규판, 장은영. (2010). 대학생의 내·외 동기, 전공몰입, 지연행동이 진로탐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역구**.
- 조규형. (2018).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이슬, 강영신 (201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민감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6**(4), 359-375.
- 지인구. (2019). **초심상담자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상담자 자기효능감의 관계: 수퍼비전 관계의 조절효과 검증. 교육치료연구, 11**(1), 93-113.

- 차성미. (2017). 외식조리전공 전문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 진로탐색행동 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9(2), 489-510.
- 천경희, 송영명. (2012). 의과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0(4), 107-132.
- 최동선.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선, 정철영. (1996). 고등학생의 직업적 성격과 직업가치관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15**(2), 1-18.
- 최옥현, 김봉환. (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3), 1063-1084.
- 최화영. (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혜신. (2007). 무용사회화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우리 춤과 과학기술, 3**(1), 1-23.
- 통계청(2022). 최근 10년 간 실업률 조사, http://www.index.go.kr/unify/idx –info.do?idxCd=8009
-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보도자료(2020.05.19.). 연준: 코로나19 이후 실업률과 노동시장 전망.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한영숙, 김선욱. (2012). 완벽주의, 자기통제력,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203-224.

- 한영철, 박은민.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8(1). 163-182.
- 홍혜영, 안혜선. (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7), 149-175.
-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1-458.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ery, R. G. (1975). Special feature: Fear of failure in the student experienc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4(4), 191–203.
- Bembenutty, H., & Karabenick, S. A. (2004). Inherent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delay of gratificatio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6(1), 35–57.
- Beswick, G., Rothblum, E. D., & Mann, L. (1988).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tudent procrastin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23(2), 207–217.
- Birney, R. C., Burdick, H., & R. C. Teevan(1969), Fear of failure, New York: Van Nostrand.
- Blustein, D. L., & Phillips, S. D.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96–202.

- Brown, D. (2002).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John Wiley & Sons.
- Burka, J. B. & Yuen, L. M. (1983).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Addison-Wesley.
- Chartrand, J. M., & Camp, C. C. (1991). Advances in the measurement of career development constructs: a 20-year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1), 1-39.
- Cock, D., & Halvari, H. (1999). Relations among achievement motives, autonomy, performance in mathematics, and satisfaction of pupils in elementary school. *Psychological Reports*, 84(3), 983–997.
- Conroy, D. E. (2001).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Anxiety, Stress and Coping, 14*(4), 431–452.
- Conroy, D. E., Poczwardowski, A., & Henschen, K. P. (2001). Evaluative criteria and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failure and success for elite athletes and performing arti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3(3), 300–322.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Cox, D. W. (2008). The operationalization of occupational engage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Ph.D., University of Kansas.
- Crites (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CTB/Mcgraw-Hill.
- Crite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acGraw-hill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8–232.
- Ellis, A., &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New York: Institute for Rational Living.
- Ericsson, K. A. (2004). Deliberate Practice and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Expert Performance in Medicine and Related Domains. *Academic Medicine*, 79(10), S70–S81.
- Ferrari, J. R. (1994). Dysfunctional procrastin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self-defeating behavi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673-679.
- Ferrari, J. R., Johnson, J. L.,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Flum, H., Blustein, D. L.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 Behavior, 56(3), 380-404.
- Fornell, C., Larcker, D. F. (1981).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Algebra and statistics.
- Gebel, M., & Giesecke, J. (2016). Does deregulation help? The impact of employment protection reforms on youths' unemployment and temporary employment risks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2*(4), 486–500.
- Gati, I., Shenhav, M., & Givon, M. (1993). Processes involved in career preferences and compromi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1), 53.
- Gati, I., & Asher, I. (2001). Prescreening in depth exploration and choice: From decision theory to career counseling practice. *The Career Development Quaterly*, 50(2), 140–157.
- Gelatt, H. B. (1962). Decision-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3), 240-245.
- Gianakos, I. (1995). The relation of sex role identity to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 131-143.
- Ginzberg, E., Ginsburg, S.W., Axelrad, S., & Herma, J.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approach to the career

-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 Lent, R. W.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areer psychology.
- Hair, J. F., Anderson, R. E., Babin, B. J., & Black, W. C.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Vol. 7).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414.
- Horscmanshof, L., & Zimicat, C. (2007). Future time orientation predicts academic engagement among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 599-610.
- Husman, J., & Shell, D. F. (2008). Beliefs and perceptions about the future: A measurement of future time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2), 166.
- Janis, I. L., & Mann, L. (1977).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New York, US: Free Press.
- Jepsen, D. A., & Dilley, J. S. (1974). Vocational decision-making models: a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4(3), 331-349.

- Jepsen, D. A., & Dilley, J. S. (1974). Vocational decision-making models: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4(3), 331-349.
- Johnson, J. A. (1978). Individual styles of decision making: a theoretical model fo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1, 182–199.
- Jordan, J. P. (1963). Exploratory behavior: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In D. E. Super (Ed.),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pp.42-48). N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Kanfer, R. (1990). Motivation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ing: an integration of developmental, differential and cognitive perspective. *Learning & Individual Differences*, 2, 221–239.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 Krejcie, R. V., & Morgan, D. W. (1970). Determining sample size for research activit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0(3), 607-610.
- Kutney, Joshua P. (2008) Guaranteeing the Failure of First-Year Composition: Four Assumptions about Writing Expertise That Support an Unattainable Standard for Transf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Annual Review, 15*(8), 223-228.
- Lent, R. W., & Hackett, G. (1987). Career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Marko, K. W., & Savickas, M. L. (1998). Effectiveness of a career time persp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1), 106-119.
- McDaniels, C., & Gysbers, N. C. (1992).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Theories, resources, and practice. Jossey-Bass.
- Mcgregor, H. A., & Elliot, A. J. (2005). The Shame of Failure: Examining the Link Between Fear of Failure and Sha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18-231.
- Miguel, J. P., Silva, J. T., & Prieto, G. (201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A rasch analysis of the portuguese ver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2), 116-123.
- Milgram, N., & Tenne, R.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decisional and task avoidant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2), 141–156.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4).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counseling. In S.D. Brown & R. W. Lent,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New York: Wiley.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1), 147–154.
- Parsons, F. (1967). Choosing a vocation. New York: Agathon Press.
- Porfeli, E. J., & Skorikov, V. B. (2010). Specific and Diversive Career Exploration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46–58.
- Sabini, J., & Silver, M. (1981). Introspection and causal accou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1), 171.
- Salomone, P. R. (1982). Difficult cases in career counseling: II. The indecisive client. *Personnel & Guidance Journal*, 60(8), 496–500.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Vol. 1., pp. 42–70). John Wiley & Sons.
- Savickas, M. L., Silling, S. M., & Schwartz, S. (1984). Time perspective in vocational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3), 258–269.
- Savickas, M. L., & Lent, R. W. (Ed.). (1994).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chouwenburg, H. C. (1992). Procrastinators and fear of failure: An exploration of reasons for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3), 225–236.
- Schunk, D. H., & Rice, J. M. (1987). Strategy value information and children's reading comprehansion.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Washington, DC.
- Shell, D. F., & Husman, J. (2001). The multivariate dimensionality of personal control and future time perspective beliefs in achievement and self-regul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6(4), 481–506.
- Shelton, S. H. (1990). Developing the construct of general self-efficacy. *Psychological Reports*, 66(3), 987-994.
- Shepherd, D. A. (2003). Learning from Business Failure: Propositions of Grief Recovery for the Self-Employed.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2), 318-328.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teel, R. P. (2002). Turnover theory at the empirical interface: Problems of fit and func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3), 346-360.
- Sternberg, R. J. (2001). What is the common thread of creativity? Its dialectical relation to intelligence and wisdom. *American Psychologist*, 56(4), 360–362.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An introduction to career development.
- Tak, J., & Lee, K.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aveira, M. D. C., & Moreno, M. L. R. (2003). Guidance theory and practice: The status of career explora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1(2), 189–207.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r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ice, D. M., & Bratslavsky, E. (2000). Giving in to feel good: The place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context of general self-control. *Psychological Inquiry*, 11(3), 149-159.
- Tiedeman, D. V., & O' 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Usinger, J., & Smith, M. (2010).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elf-construct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3), 580-591.
- Van Eerde, W.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5, 1401–1418.
- Vroom, V. H. (1965). Motivation in management. New York: American Foundation for Management Research.
- Walton, S., & Mallon, M. (2004). Redefining the boundaries? Making sense of career in contemporary New Zealand.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42(2), 75–95.
- Walker, T. L., & Tracey, T. J. (2012). The role of future time perspective in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2), 150–158.
- Zimbardo, P., & Boyd, J. (2008). The time paradox: *The new psychology of time that will change your life*. Simon and Schuster.
-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6th ed.). Brooks/Cole Pacific Grove.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에서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 홍석호라고 합니다.

학교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지는 선생님이 **진로의사결정 수준, 사회부과 완벽주의, 실패 공포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절문지에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이내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 결과는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익명 처리되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하신 절문지는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불성실 응답으로 간주될 경우, 기프티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모든 내용에 성실하게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성심성의껏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대학졸업예정자의 진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 2022년 04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홍 석 호 지도교수 최 수 정

[연구자 연락처] 전화: 010-0000-0000 / e-mail: ghdtjrgh10@snu.ac.kr

I. 다음은 현재 여러분이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 표 시를 해주세요.

번 야	내용	전 혀 그 렇지 않다	그 랳 지 않 은 편 이 다	그 저 그 랳 다	그 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의 진로를 위해서 1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느낀 다.	1)	2	3	4	(5)
2	나는 시간이 아직 많아 진로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 다.	1)	2	3	4	(5)
3	나는 현재 진로를 결정할 필요 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1	2	3	4	(5)
4	지금 진로를 결정해 봤자 내게 도움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1	2	3	4)	5
5	진로를 결정하면서 내가 선호하 는 요소나 성취 가능성 등을 충 분히 검토한다.	1	2	3	4	(5)
6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 해 본다.	1)	2	3	4)	5
7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 아야 하는지 확인해 본다.	1)	2	3	4)	5
8	진로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점검한다.	1)	2	3	4	5
9	나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수행 하는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예측해 본다.	1)	2	3	4	(5)
10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11	내가 생각하는 진로의 실현가능	1	2	3	4	5

	나이 나이 스 이를 주면 된길이	1				
	성을 높일 수 있게 주변 환경을 바꾸려 노력한다.					
12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 획과 방법에 대해 다른 사람들 과 이야기한다.	1)	2	3	4	(5)
13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잘 아 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14	나의 진로를 위한 활동들을 할 때 집중이 잘 되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관심있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16	지금 하는 활동들이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더 몰입하게 된다.	1	2	3	4	(5)
17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은 우선순 위로 놓는다.	1)	2	3	4	(5)
18	내가 원하는 진로를 위해 필요 한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은 즐 겁다.	1)	2	3	4	(5)
19	나는 노력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5)
20	진로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 더라도 곧 적응할 수 있다고 자 신한다.	1)	2	3	4	5
21	나의 진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다.	①	2	3	4	(5)
22	나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1)	2	3	4)	(5)
23	나는 진로를 성취하기 위해 내 스스로 기회를 만들 수 있다.	1)	2	3	4	(5)
24	내가 생각하는 진로가 내 적성 과 맞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①	2	3	4)	(5)
25	진로를 위해 내가 시작한 과업 들을 완수하지 못 할 것만 같다.	①	2	3	4)	(5)
26	나의 진로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	1)	2	3	4	(5)
27	이 대로는 결국 내게 잘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걱 정된다.	1	2	3	4	(5)
28	다른일을 하느라 내게 적합한 진로를 찾을 기회를 놓칠 것 같 아 두렵다.	1)	2	3	4	(5)

	나는 진로 결정에 따른 행동의					
29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	2	3	4	(5)
	견디기 힘들다.					

Ⅱ. 다음은 자기효능감에 관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답안지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번 호	내용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 저 그 렇 다	그런 편 이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 으로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2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 적으로 해낼 수 있다.	1)	2	3	4	(5)
3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 다.	1)	2	3	4	(5)
4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 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 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 분을 성취할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 어도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0	2	3	4	5
10	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1)	2	3	4	(5)

Ⅲ.다음은 여러분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를 답안지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번 호	내용	전 혀 그 렇지 않 다	그 랳 지 않 은 편 이 다	그 저 그 렇 다	그런 편이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현재 필요한 것을 선택하 기보다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	1)	2	3	4	(5)
2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보다 현 재의 즉각적인 기쁨이 더 중요 하다.	1)	2	3	4	(5)
3	성공은 현재의 성공보다 한 사 람의 생애가 끝나는 시점에 확 인할 수 있다	1	2	3	4	(5)
4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 기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다.	1	2	3	4	(5)
5	현재 원하는 것을 구매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중 요하다	1	2	3	4	(5)
6	장기적인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 보다 더 중요하다.	1)	2	3	4	(5)
7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보다 인 생 전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 나는지가 더 중요하다	1	2	3	4	(5)
8	나는 미래에 대해 많이 생각하 지 않는다.	1	2	3	4	(5)
9	나는 미래에 할 것들에 대해 많 이 생각한다.	1)	2	3	4	(5)
10	사실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는 없다.	1)	2	3	4	(5)
11	오늘 하는 일이 10년 이후에 발 생할 내 미래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2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고려	1)	2	3	4)	(5)

	하는 것은 중요하다.					
13	나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 을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14	5년이나 10년 후 미래를 위해 목표를 가지는 것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1	2	3	4	(5)
15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1	2	3	4	(5)
16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은 시간 낭비다.	1)	2	3	4	(5)
17	5년 또는 10년 후에 개인이 원 하는 것을 위해서 미래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18	미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1)	2	3	4	5
19	현재의 일을 결정할 때 장기적 으로 일어날 일은 큰 고려대상 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2	3	4	(5)

IV. 다음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못해내어 실패경험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알아 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답안지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번 호	내용	전혀 그 렇지 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그 저 그 렇 다	그 런 편 이 다	매우 그 렇다
1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 을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2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3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그것은 내게 중요한 사람 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1)	2	3	4	(5)
4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부족한 내 재능을 탓한다.	1)	2	3	4	(5)
5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의 미래 계획들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1)	2	3	4	(5)
6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는 중요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 예상 한다.	①	2	3	4	(5)
7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내가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 한다.	①	2	3	4	(5)
8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있다.	1)	2	3	4	(5)
9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 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①	2	3	4	(5)

10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 하고 있을 때, 잘 해낼 때에 비해 나는 덜 가치 있는 사람 이 된다.	1)	2	3	4	(5)
11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 관심을 덜 갖는다.	1)	2	3	4	(5)
12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이로 인해 나의 미래 계획 이 영향받게 될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1)	2	3	4	(5)
13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내게보다 덜 도와주고 싶어 하는것 같다	①	2	3	4)	(5)
14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 은 행복하지 않다.	1)	2	3	4	(5)
15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 하고 있을 때, 나는 쉽게 내 자신을 나무란다.	1)	2	3	4	(5)
16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성과가 나도록 나를 잘 통 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오한다.	①	2	3	4)	(5)
17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가는 경 향이 있다.	1)	2	3	4)	(5)
18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를 보고 있 다면 나는 당황한다.	1)	2	3	4	(5)
19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 은 실망한다.	1)	2	3	4	(5)
20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내가 못해내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한다	1)	2	3	4	(5)
21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	1)	2	3	4	(5)

	지 않는다.					
22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나에 대해 못 미더워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느끼게 되리라 생각한다.	1)	2	3	4)	(5)
23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에 게는 나의 가치가 감소한다.	1)	2	3	4	(5)
24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걱정 된다.	1)	2	3	4)	(5)
25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Ⅳ. 다음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찾아 답안지에 체크 표시를 해주세요.

1	2 3	4		5		6		20	7
전혀 그	렇지 않다	보통이다					Ţ	매우 그	당다.
번 호	내용					구분			
1	남이 내게 기대하는 시키기가 어렵다.		1	2	3	4)	(5)	6	1
2	내 주위 사람들은 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다.	Θ	2	3	4	(5)	6	1
3	내가 잘하면 잘 할수 은 내가 더 잘 할 것 할 것이다.	이라 기대	\odot	2	3	4	(5)	6	7
4	내가 일을 훌륭히 못 람들은 나를 형편없다 이다.		1	2	3	4	5	6	1
5	주변 사람들은 내가 ! 서 성공하기를 기대한		1	2	3	4	(5)	6	7
6	내가 모든 일에서 뛰어 아도 사람들은 나를 한 이다.		1	2	3	4	(5)	6	7
7	성공이란 다른 사람들 하기 위해 더욱 열심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2	3	4	(5)	6	1
8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 들은 나를 괜찮은 사 각한다.	람으로 생	\odot	2	3	4	(5)	6	7
9	나는 사람들이 내게 I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	한다.	①	2	3	4	(5)	6	1
10	내가 실수했을 때 사 으로 드러내지는 않7 실망할 것이다.	 기만 매우	Θ	2	3	4	(5)	6	7
11	우리 가족은 내가 온 기대한다.		1	2	3)	4	(5)	6	1
12	부모님은 내가 모든 이 어나기를 기대하지 않는	 _ 다.	0	2	3)	4	(5)	6	①
13	사람들은 내가 완벽해 대한다.	지기를 기	1	2	3	4	(5)	6	7
14	사람들은 내가 할수 !	있는 것보	1	2	3	4	(5)	6	7

	다 더 많은 것을 내게 기대한다.							
15	내가 실수를 할 경우에도 내 주 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유능 하다고 생각한다.	\odot	2	3	4	(5)	6	Ī

Abstract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 General Self-Efficacy in University Senior Students

By Seokho Hong

Thesis for the Master of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0

Major Advisor: Sujung Choi,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 and general self-efficacy of university senior studen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related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and the following hypothesis was Structural established. First.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Relationships Stat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 General Self-Efficacy in University Senior Students will be suitable for predicting the influence relationship. Second, in the set structural model,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social imposition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nd general self-efficacy wil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each other. Third,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for university senior student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 and general self-efficacy will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e population of the study was expected to graduate from a four-year university in Korea, with a total of 191 four-year universities nationwide and 520,659 students in fourth grade or older as of 2020. In addition,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was 222,759 and 297,900, respectively, at a ratio of about 2:3, so sampling was conducted using the stratified cluster ratio sampling. Since it was a ratio of 2:3, sampling was conducted using the stratified cluster ratio sampling. Four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six non-metropolitan schools were sampled, and 76 students(20.2%) in humanities, 115 students(30.5%) in social studies, 109 students(28.9%) in engineering, 56 students(14.9%) in nature, and 21 students in arts and sports (5.6%) were sampled. Among them, 186 men (49.3%) and 191 women (50.7%) were men. As a result, a total of 377 people were sampled.

As the survey tool,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survey question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 general self—efficac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as used. The reliability of each survey tool was confirmed through a preliminary survey and a main survey. Data collection took place from April 18 to May 4, 2022, and a total of 391 copies were collected. Among them, 377 copies of the data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excluding the results that included unfaithful responses. For the data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normality tests of observation variables were conducted using STATA 14.2, and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model fit test of structural

equation,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R.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decision-making stat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 and general self-efficacy, the absolute fit index was all derived appropriately, the incremental goodness-of-fit index was also derived as suitable. Second, factor load, average variance extraction, and synthetic reliability were used to determine the convergenc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As a result, all other variables showed suitable values, but career perception, an observation variable at the career decision level, showed a very low level of factor load and adversely affected average variance extraction, so it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After that, as a result of convergent validity analysis of career information analysis, career environment management, attention concentration, career identity formation, and career stability formation as observation variables, the factor load of each observation variable was more than .5 and average variance extraction .758 and synthetic reliability of .903 were suitably derived.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results, it was judged that the model set in this study was suitable for predi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Third, in relation to the direct effect in the structural model,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path of college graduates and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general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path, a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ath of fear of fail and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had a negative effect and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socially perfectionism and general self-efficacy pathways had a negative effect and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path of fear of fail and general self-efficacy, it had a negative effect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in relation to the mediating effect in the structural model,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l self-efficacy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fear of fail and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ere may be various variables that adversely affect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of college graduate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generalized studies that have mainly focused on the special self—efficacy of a specific major or special group. Second,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explore various variables that negatively affect the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of college graduates located at an important stage in the career development stage, and among them, institutional support to alleviate social imposition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ure is needed. Third, it can be suggested that intensive support is needed to lower the level of variables that negatively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such a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various independent variables that negatively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Second,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support to lower the level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fear of fail that negatively affects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Keywords: University Senior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tatu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fear of fail,
general self—efficacy

Student Number: 2020-25379